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4 9



VOL. 219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Note 3 + Gear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www.samsung.com/id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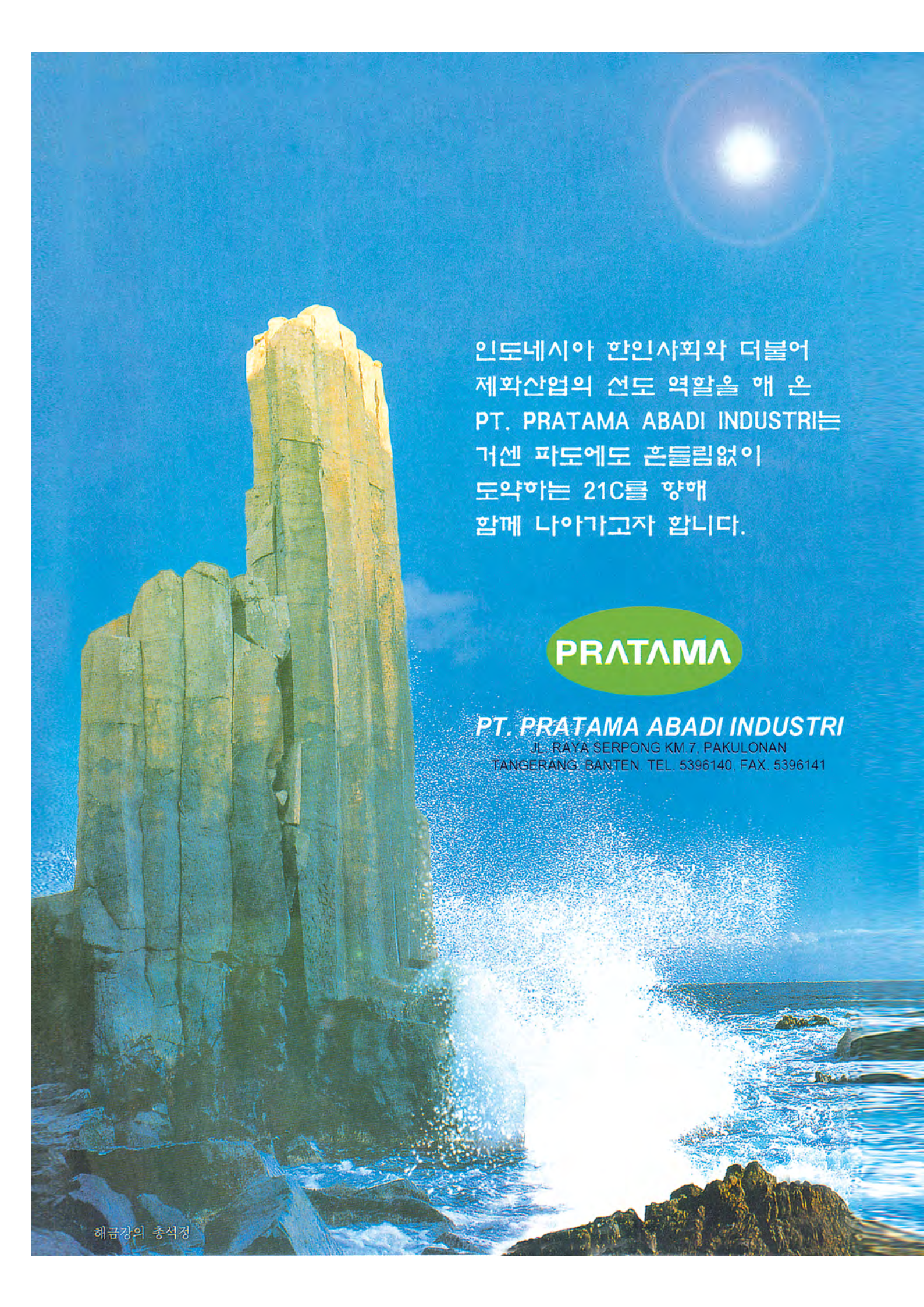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205	0705 ⁺¹	매일
	KE626	0750	1655	월,목,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KE625	1925	0035 ⁺¹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선도 역할을 해 온
PT. PRATAMA ABADI INDUSTRI는
거센 파도에도 흔들림없이
도약하는 21C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PRATAMA

PT. PRATAMA ABADI INDUSTRI

JL. RAYA SERPONG KM.7, PAKULONAN
TANGERANG BANTEN. TEL. 5396140, FAX. 5396141

하나와 KEB가 만나 더 큰 금융이 되었습니다

세계 23개국 글로벌 금융의 중심 외환은행과
대한민국 BEST BANK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났습니다.
자산관리에서 글로벌 금융서비스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KEB Hana Bank**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 례..... 6

이모저모 한인사회..... 8

논설위원 칼럼 / 40대 기수들 <김문환>
 제69주년 8.15 광복절
 한국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
 인도네시아, 그리고 꽃
 이철우 의원, 인도네시아 한인회 방문
 이철우 의원 강연회
 꿈나무 학교 신축 준공식
 글로벌 CEO 과정 수료식
 POP IN ASIA
 한인 기업 진출 50년 사례집



Monumen Nasional (Monas)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연결고리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일 겁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드러난 조꼬위의 승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이른바 환경의 지배와 상황이 주는 힘에 의해
 개인의 역할이 결정되듯이,
 우리들은 정체성이 확고한 존재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응만을 준비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작은 조짐에서 시작되니까요.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문화예술명사 초청 사업 KOICA, ICT 보안연구 개발센터 구축사업 CJ제과제빵학과 개원식 롯데슈퍼마켓 끄망점	풍경과 사람(이끼)<엄종한>.....41
내 마음의 뜰/ 성가신 일상 <시: 김주영/ 그림: 이태복>33	Jalan-Jalan Jakarta / 수로빠띠 공원 <사공경>.....49
8월의 경제브리핑.....34	인도네시아 약용식물/ 자무(3) <백진협>52
기업탐방 <PT.DOOSAN CIPTA BUSANA JAYA>.....38	법률해설/ 법인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이승민>.....56
일반인이 알아야 할 응급처치.....40	풍경과 사람/이끼<엄종한>.....59
9월의 행복에세이 <서미숙>.....42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60
아세안 스쿨투어 <나세진>.....46	화 도 소62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Rini Soemarno, Anies Baswedan, Akbar Faizal, Hasto Kristianto & Joko Widodo

40대 기수들

김문환/논설위원

제 3공화국 시절 ‘40대 기수론’이 등장한 적이 있었다.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정권교체의 고비마다 신익희, 조병옥, 유진오와 같은 원로 정치인들이 고령으로 인한 신변문제로 번번히 실기하게 되자, 더 이상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소명을 배경으로, 1970년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3인의 소장파 야당정치인들이 ‘40대기수론’을 선언하게 된다. 실제로 이들은 당시의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당권도전을 기치로 내걸고 한국의 정치판을 6월의 신록처럼 싱그럽게 변모시켜 왔다. 그 중 두 분은 정상에까지 올라 ‘40대 기수론’의 당위성을 증명하였다.

10월 20일이면 조코위 정부가 출범한다. 정권출범을 위해 전임 정권과의 인수인계작업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8월 초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며 지도부가 임명되었고, 8월 27일엔 유도요노 대통령과 조코위 당선자가 발리에서 회동하여 원활한 인수인계작업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2001년 메가와띠 대통령이 조각에 착수할 당시 당사자와의 면

담절차 없이 전화 한 통화로 의사만 타진한 후 상공부장관직에 임명되었다는 리니 수마르노가 이번에 또다시 인수위원장이라는 요직을 맡아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매서츠세츠주 소재 명문여대 웰즐리대학 출신인 리니 여사 밑으로 네명의 부위원장이 동시에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40대 정치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코위 대선 캠프의 핵심 정책통이었던 안디 위자얀 또는 43세, 투쟁민주당 사무차장인 하스또 크리스띠안또는 48세, 나스탸당 소속의 아끄바르 화이잘은 46세, 민주당 대선경선에 출마까지 했다 조코위 진영으로 기수를 돌린 아니스 바스웨단은 45세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40대가 아니면 명함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모되고 있다.

비록 대선에서 패하긴 하였지만 빠라보워 진영의 실질적인 2인자인 화들리 존도 40대이며, 그를 보좌하는 주요 참모진에는 30대는 물론 20대까지 포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대 정권에서 원로정치인들이 주류를 이루던 전통이 세대교체라는 시

대적 흐름에 탈색되고 있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65세까지, 수하르토 대통령은 79세까지 권좌를 지켰다. 그 뒤를 이은 하비비 대통령이 국회 불신임결의로 권좌에서 내려온 연령도 60대 초반이었으며, 구스 두르 대통령도 국회 탄핵을 받은 다음날 미국으로 떠나던 당시의 연령도 60대 초반이었다. 국민직선으로 10년간 집권하다 중임 임기를 마치게 되는 유도요노 대통령은 올해 65세를 맞고 있다.

조꼬위 당선자가 등지를 들고 있고 향후 집권세력이 될 투쟁민주당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치 않은 역학구도를 안고 있다. 조꼬위의 측근참모로서 전면에 등장하는 인수위원 외에 당권도전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후보군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의 최대주인 메가와티 총재의 후계구도가 시급하다는 점도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0월 1일 새로 출범하는 국회에서는 의장직을 놓고 파행이 예상된다. 삼부요인 중 한 축인 그 직위에 누가 오르느냐에 따라 차기 대권구도와 연결될 수 있기에 투쟁민주당 사무총장인 짜요 꾸몰로, 뿌라모노 아눔 국회부의장과 더불어 뿌안 마하라니 원내대표가 선두주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이유이다. 종전대로라면 이 자리는 제 1당인 투쟁민주당 몫이었으나, 라이벌 진영은 대선 전날인 지난 7월 8일 관련법을 개정하여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쐬기를 박아 놓은 상태이다. 이번 대선에서 흑색선전과 악성루머로 오염된 정치풍토를 추스리기 위해 주요정당의 차세대정치인들이 화해의 장을 모색하고 나섰다. 현재판결로 이전 승자로 확정된 조꼬위 선대진영의 토론팀장으로 활약했던 마루아라르 시라잇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그는 투쟁민주당 창당원로인 사밤 시라잇의 장남으로 지난 10년 동안 인상적인 의정활동을 벌여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45세의 소장파 정치인으로서 차세대 정치인 반열에 들만하다.

10월 20일 취임식 이전에 조꼬위가 주지사 자리를 비워놓게 되면 그 자리를 부지사가 자동 승계하게 되고, 공식이 된 부지사자리를 새로 메워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선 이 자리를 놓고 공천당사자인 투쟁민주당과 게린드라당이 백백한 샷싸움을 벌이고 있다. 게린드라당 소속의 아혹 부지사가 주지사로 승격하였으니 부지사는 투쟁민주당 몫이라며, 60~70년대 전설적인 자카르타주지사였던 알리 사디킨의 아들, 보이 사디킨을 천거하고 있다. 현재 투쟁민주당 자카르타 지부장이라는 목직한 타이틀과, 부친이 남긴 후광이 잘 조화된다면, ‘조꼬위 신드롬’이 그러했듯이 또다른 신드롬이 등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번 선거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은 구시대 인물을 배척하고 때묻지 않은 신선한 정치인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인도네시아 정국은 바야흐로 40대 인물들이 정치주역으로 떠오르며 춘추전국시대적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Maruarar Sirait,



Basuki Tjahaja Purnama (Ahok)



Boy Sadikin



박근혜 대통령 8.15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와 국가 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국민 여러분, 오늘 제69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6주년을 맞이해 온 국민과 함께 이 뜻 깊은 날을 경축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그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 위에 나라를 세우고, 북한의 남침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쳤습니다. 선조로부터 고귀한 유산과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세월을 딛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안팎으로 밀려오는 술한 역경과 도전을 불굴의 의지와 단합된 정신으로 헤쳐 오면서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희망이 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부터 전자정부 구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취와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위대한 역사를 개척해 온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한 힘찬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자기혁신과 변화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앞선 국가들을 추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지난 시절의



성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낱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쉽 없이 잘살기 위한 길을 달려오다 보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기회를 돌아보지 못했거나 놓쳐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깨진 항아리를 손으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되어 왔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는 대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가 재도약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을 추진해 가고, 민관유착의 부패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폭력행위는 국가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입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혁신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법과 정책을 제 때 만들고, 실천할 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서 어렵게 일궈낸 경기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 있습니다.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혁신의 과정에서는 기득권을 버리고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암울해 질 것입니다. 국가혁신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가혁신을 이뤄내서 희망과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느냐 아니면, 저성장이 고착화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비효율 등 우리 경제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아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고,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성장해서 국가발전의 과실이 국민의 삶 속에 골고루 퍼지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국정역량을 집중해서, 그간 지속되어 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입니다.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서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하여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미래 성장동력을 이어갈 먹거리 산업을 찾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해서 항상 새로운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산업도 창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신흥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조선과 철강 등 주력산업을 ICT 융합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배가하고 농업도 6차 산업화, 수출 산업화를 통해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국민안전 부각을 계기로 에너지와 안전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업도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화 해야 합니다.

경제 불씨를 살리고 성장동력을 찾는 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좀 더 배려하는 상생의 자세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번에 한국노총의 복귀에 따라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된 것은 그분들이 많은 고심을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노사현안에 대해 노사정간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이런 힘을 모아 우리 모두 상생의 지혜를 짜내서 한국 경제의 힘찬 재도약을 이루어 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69주년이자 동시에 분단 69주년이기도 합니다. 분단된 상태

로 지속되어 온 69년의 비정상적 역사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분단의 고뇌가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점차 무더지고, 비정상적 현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위험을 물려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북한은 분단과 대결의 타성에서 벗어나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합니다. 스스로 핵을 포기한 카자흐스탄과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베트남, 미얀마 등은 이웃나라들과 협력하며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가는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협력의 시동을 위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서 남북한과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경 공동체 형성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의 통로도 열어가야 합니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 서로의 고통을 덜어가고, 작은 마을에서부터 남북한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인프라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면 남북한 주민의 삶이 모두 향상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의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준비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작은 것부터 소통하며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작은 통로들이 모인다면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북한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사업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은 대화를 통해 대립과 고통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행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같이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로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계속되고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 구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환영할 것이며, 남북은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건설적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한일 양국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에 남아 있는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국은 오래전부터 문화적, 정서적 교류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양국 국민들은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하면서 양국 관계의 저변을 견고히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해 왔고, 특히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내년의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 정부도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실은 마음대로 가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앞으로 역사의 진실을 찾아나갈 것이고 역사의 증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년이 양국 국민들 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합니다.

지금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 종식 후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대립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역내 국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불신의 씨앗이 배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도전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원자력 안전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EU가 석탄철강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자협력을 이루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만들었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몽골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난구조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마약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공동의 협력을 확대하며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 국가들이 이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북아의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꿈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광복과 건국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꿈이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애쓴 앞선 세대들의 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 제2 광복의 길을 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희망의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비록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력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4년 제69주년 8.15 광복절 한인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경축사를 대독하신 조태영 대사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님, 김기식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신동우 의원님이 참석하여 광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어 더욱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지 69주년 되는 역사적인 날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워 오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들에게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당한 36년 간의 치욕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다가 나라를 잃은 치욕을 당하게 되었는지 되짚어 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계속의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서 두번 다시 후손들에게 불행한 역사를 물려주지 않을 것인지 오늘 새삼 다짐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해방 직후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갈리고 동족 상잔의 6.25전쟁을 겪었지만 우리 국민은 결코 굴하지 않고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켜 내었습니다. 비록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여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지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유일한 분단국가이지만 이제는 많은 나라에 도움을 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세계가 주목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함께 남북 교류

가 더욱 폭넓게 진전되어, 가까운 장래에 남북이 하나됨이 필연임을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 번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남북이 하나되어 세계의 중심국가로,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한민족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가 먼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 가꾸어 후대들에게 물려 준다면 우리는 진정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하고 진심어린 사랑과 배려로 우리의 따뜻한 정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고속성장하면서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빨리빨리” 문화를 되짚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를 적당주의로 사회 곳곳에 만연시켜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인사회 지도자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꾸어 가시면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한인사회는 영원히 축복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제69주년 8.15 광복절

광복 69주년을 맞이하여 조국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8.15 광복절 기념식’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1층 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오전 9시, 조태영 대사,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한인회(회장 신기엽), 한인회 승은호 명예회장, KOCHAM(회장 송창근) 등 주요 단체장과 한인 동포, 대사관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축식은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으로 진행됐다.

조태영대사는 “지금까지는 앞선 국가들을 추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지난 시절의 성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며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 그간 지속돼 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다짐한 내용의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대독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세계의 선진국대열에 합류 할수 있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 대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한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속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기엽 한인회 회장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숨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일제치하의 굴욕스러운 역사를 잊지 말자”며 “한인들이 앞장서서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 후세들에게 따뜻한 정이 넘치는 조국을 물려주자”고 말했다.

기념식은 한인회 조규철 수석 부회장의 선창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목청껏 외치며 마무리됐다.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박 대통령은 지난 7.23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 발송

박근혜 대통령은 8월 7일 오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인도네시아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하고, 새롭게 출범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당선인이 과거 솔로 시장 및 자카르타 주지사 시절에 행정 개혁 및 공공 서비스 개혁 등 많은 업적을 이룬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큰 기대와 지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조코 위도도」 당선인의 리더십 하에 인도네시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국민방문을 통해 양국 간 깊은 우의와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주요 파트너 국가이며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대상으로서,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파트너십이 더욱 견고히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특히, 정치·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및 전자정부 등에서의 호혜적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조코 위도도」 당선인은 박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협력이 계속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히 인프라 분야 및 한국기업의 투자 촉진 등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2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포함,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했다. 양측은 금년에 예정된 APEC, ASEAN 등 다자회의의 계기 만남도 기대한다고 했다.

금번 전화통화는 인도네시아 신정부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아세안의 주도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 최종선발 및 출국

주인도네시아대사관(대사 조태영)은 2014년 대한민국 정부 초청 대학원장학생선발에 최종합격하여 출국을 앞둔 인도네시아학생 10명을 대사관으로 초청하여 합격을 축하하고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8월 6일(수) 가졌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4년도 KGSP(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정부 초청 대학원장학생은 전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공관의 1차 선발 및 추천을 거쳐 533명을 최종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들은 8월 말 출국하여 한국의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1년 한국어연수를 거친 후 합격통보를 받은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장학제도이다.



금년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총 10명 선발 인원에 250명이 지원하였으며 이 중 인문사회계열 출신은 6명, 이공계 4명이고 여자는 7명, 남자는 3명을 선발하였다. 간담회에서 박영식 공사는 높은 경쟁을 뚫고 합격한 장학생들을 축하하고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 기도 고양시 호수공원에 위치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1997년도에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로 창립)는 올해까지 8회의 고양국제꽃박람회와 16회의 고양꽃전시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도 인도네시아 보고르 식물원에서 꽃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이번 고양국제꽃 박람회 이봉운 대표 외 고양시 대표단 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8월22일 도착하여 4일동안 보고르 식물원장 및 자카르타 시 공무원, 보고르시 농림부관계자, 창조경제 관광부 관계자와 회의를 거쳐 긍정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어 8월25일 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제반 여건을 타진하기 위해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신기업)와 간담하였다.

2009년도부터 인도네시아 산림청과 농림부에서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상호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희귀식물인 타이타니움과 라플레시아를 보존처리하여 꽃박람회에 전시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꽃을 통한 한류를 더욱 다양하고 풍성히하며 양국 화훼산업의새로운 상생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우 의원 인도네시아 한인회 방문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신기업 회장 및 한인회 관계자들은 8월 11일(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도네시아 관계 및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이철우의원은 자유총연맹이 주최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제 한 열린 강연회를 위하여 2박 3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됐다.

한인회와 이철우 의원 일행은 6·25전쟁을 통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경

제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부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노조, 세월호 특별법,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등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철우 의원은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이 5~6%대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 향후 우리와 매우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도록 현지인들과 화합하여 살기”를 당부하였다.

신기업 회장은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슬러건으로 걸고 한인회를 운영해나간다”며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많은 일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국회의원 열린강연회 나의 조국 대한민국



2014년 8월 11일 오후 4시, 한국문화원에서 이철우 국회의원은 인도네시아 동포들을 대상으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신기엽 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단체장들과 많은 한인동포들 그리고 강연회를 준비한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부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철우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어제와 오늘, 6.25 전쟁이 남긴 인명피해,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유라시아의 공산주의 확장과 한반도, 2010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개최한 기적의 민족 기적의 나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감탄한 대단한 나라 놀라운 한국인, 달라진 남과 북의 어제와 오늘, 한국-인도네시아 관계와 동반성장 전망, 아시아의 떠오르는 별 인도네시아, 한국과의 동반성장의 파트너 인도네시아 등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강연을 마친 후 후에는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의에 응답을 하는 순서를 가졌다.



인사동정



이재학 KEB Hana Bank 은행장

외환은행 해외 사업 그룹장과 하나금융지주 글로벌 전략실 전무를 거쳐 2014년 7월 인도네시아 하나외환은행 은행장으로 부임했다. 앞으로 한인회 부회장으로서 한인사회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꿈나무학교 신축 준공식

28일, 인도네시아 땅그랑 빨렘스미에 위치한 교민교회에서 꿈나무학교 신축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젠한국 김성수 회장, 신기업 한인회장, H. ARIEF RW.B.SC 땅그랑시장, H.AKHMAD LUTFI 땅그랑 교육감등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젠한국은 사회 공헌 활동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인 학생들의 교육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 꿈나무학교는 젠한국이 교민교회 내에 설치한 교육 기관이다.

젠한국은 5억 4천 500만 원을 지원해 4층 건물에 22개의 교실과, 강당 등을 갖춘 최신식 학교를 설립했다. 2000년 꿈나무 유치원 과정을 개설한 뒤 2005년에는 꿈나무 초등학교 과정, 2011년에는 꿈나무 중학교 과정을 열어 250명의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ZEN은 나환자촌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의료지원, 지역 주민 집수리 지원, 식문화 개선을

위한 도자기 그릇 지원, 인도네시아 명문 국립대학교 내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코너 개설, 한글사랑콘서트 지원, 인도네시아 재난민을 위한 물품 지원 등 인도네시아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신기업 한인회장은 “김성수 회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인도네시아를 리더 할 수 있는 학생이 되어달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오늘은 축복 받은 날이니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행사를 마무리하자”며 축하해줬다.

젠한국 관계자는 “꿈나무학교 통해 지역 주민 및 인근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서 꾸준한 사회공헌 및 문화교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 꿈나무 학교는 인도네시아 미래의 꿈나무를 길러내는 교육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석균 경영대학원장



최우수상 신만기 신발 협회장과 김인철 총장



우수상 이강현 한인상공 회의소 수석부회장

글로벌 CEO 과정 수료식

한국외국어대학(총장 김인철) 인도네시아 글로벌 CEO 과정 1기를 마친 24명의 수강생에 대한 수료식이 29일 열렸다.

코린도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국대사관 조태영 대사, 코린도 승은호 회장, 코참 송창근 회장, 외대 김인철 총장, 권석균 경영대학원장과 수강생 가족들이 참석하여 이들의 수료를 축하했다. 이번 ‘글로벌CEO과정’은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 CEO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전략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마련되어, △조직과 인사 관리 △마케팅 관리 △전략경영 △회계와 가치경영 △재무관리 △인도네시아 문화의 원형 △리더십과 변화 경영 등 각 과목당 9시간 총 63시간 강의가 진행됐다.

김인철 총장은 수료식에서 “세계 곳곳에 뻗어있는 동문들과 함께 교류하며 함께 상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영 대사는 “변화가 없는 곳은 없다. 변화에 대처하자”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해줬다.

승은호 회장은 “세계 경제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불리한 환경에서 글로벌 경영자 과정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다”며 “여기서 배운 지혜가 알차게 활용되어 평생 학습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석균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수업을 마친 수강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갈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졸업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쓴 수강생들은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다”며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다. 기념촬영과 교가제창이 끝난 후 동문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만찬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료증 수여식과 더불어 우수 학생에 대한 수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

- 최우수상 : 신만기 (PT. Parkland)
- 우수상 : 이강현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 전민식 (PT. Powertech)
- 공로상 : 공자영 (PT. Inko Batam)
- 김상기 (PT. E-Z Express)
- 김영율 (PT. SungChang Indonesia)



NEW ICON : POP IN ASIA

15일, 한-아세안(ASEAN) 대화관계 25주년을 기념하는 팝아트 미술전 'New Icon:Pop in Asia'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Salihara 갤러리에서 동남아 10개국 아세안대사,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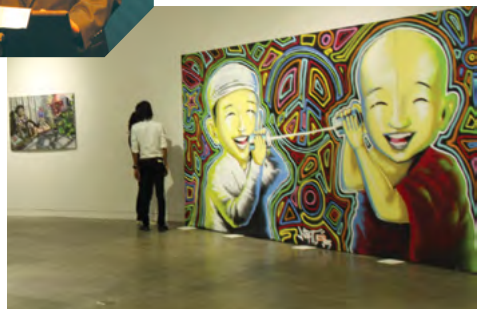
주 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가 주최하고, Surya 대학교 Arco Labs 와 Salihara 갤러리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문화원이 후원한 이 행사는 8월15일부터 9월 7일까지 3주간 계속됐다.

개막식에서 백성택 아센 대사는 축사를 통하여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한국은 더욱 더 밀접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고 말했고, DJ Heru와 필리핀 작가 Thomas Daquioag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큐레이터인 전정옥씨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국경을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는 대중문화(pop culture)를 모티브로 하였다” 며 13팀의 한국 및 아세안 출신 작가들의 일상과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낸 작품들을 관람객들에게 설명해줬다.

동남아시아는 서로 협력하여 상생해야하는 이웃으로 앞으로도 한-아세안(ASEAN)의 무역확대, 투자 촉진, 문화, 관광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교류와 결속력을 더욱 다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오는 12월 11~12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릴 계획이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인기업진출 50년 사례집 발간



주인도네시아대사관(대사 조태영)은 대한상공회의소,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KOTRA와 공동으로 올해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진출 50년에 즈음하여 한인 기업의 비즈니스 성공, 실패사례를 한데 묶은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사례에 답이 있다」를 발간하였다.

동 사례집은 1968년 대한민국 1호 해외투자기업인 한국남방개발(KODECO)을 시작으로 약 50년의 역사를 지닌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기업의 경영 사례를 분석하여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경영환경을 이해하고,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실패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발간되었다.

이번 책자는 1차(산림, 에너지, 광업), 2차(건설, 봉제섬유, 식품, 신발, 약기, 요업, ICT, 자동차, 기계, 전자, 제지, 철강), 3차(관광, 금융, 교육, 교통물류, 언론, 의료, 유통, 한식) 등 22개 업종, 66개사를 현지 한국계신문사인 「한인포스트」를 중심으로 참여한 10여명의 집필진들이 심층 취재·분석하고, 업종별, 업체별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례집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주인도

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8월 12일 열린 출판 간담회에서 조태영 대사는 “사례집이 인도네시아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다른 업종의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실패 사례 공개가 어려운 일임에도 추후 인니 진출 기업들을 위해 선뜻 그 사례를 공개해준 기업들에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후 우호적인 정치·경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5만여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2,200여개 기업들이 진출해 1백만명의 현지인을 고용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5대 투자국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 한인기업인들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향후에도 현지 경영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진출 50년 사례집>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 http://idn.mofa.go.kr/korea_n/as/idn/news/news/index.jsp

[한인문예총 종합예술제]

〈부제: 한인세대가 남기는 메시지〉

-공연

○일시-2014년 10월 12일(일) 오후 6시 30분
~8시 30분

▶장소-JIKS 나래홀

-전시

○일시-2014년 10월 11일(토) 오후 4시(개막식)

-문협 시낭송, 일화차 다도시연

11일(토) ~14일(화) -문협 시화전,
서예협회 서예전,
헤리티지 활동사진전

16일(목)~ 22일(수) -제 15회 한인미협전시

24일(금)~ 26일(일) 제 5회 루시 플라워회 회원전

▶장소- 한국문화원(에퀴티 타워 17층)

-명사초청

▷무형문화재

1차 공연 -경기민요 4인조(단장 이나영) (장소: JIKS)

2차 공연-10월 14일 수요일 오후 6시~7시반/
(장소: 롯데쇼핑 5층 아이스 펠리스)

-주최

제인도네시아한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한인문예총)

-공동주

한국문화원/ 문화예술 명사초청사업'

-기업후원

☞코린도그룹 ☞키테크 자야아공사
☞삼성전자 인도네시아현지법인

-개인후원

☞김재유 회장 ☞배상경 회장 ☞이현상 회장

-공연당일(12일)

* 오후 4시~6시 JIKS(나래홀 건물 앞) 바떡실습
(한*인니문화연구원 주관)

* 간단한 석식(김밥, 떡, 제빵류) 준비

* 2014년 동인지 '문학과 사람' (문인협회)배포



한인문예총-한국문화원

문화예술 명사 초청사업 공동 추진 협약

전시.공연.창작 분야별 명사 초청 강연, 전시, 공연, 워크숍 공동추진
첫사업, 10.12문예총 종합예술제 계기 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초청행사



재 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김문환)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원장 김석기)은 지난 8월 14일 전시, 공연, 창작 등 분야별 ‘문화예술 명사 초청사업’을 공동 추진에 관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양측은 ‘문화예술 명사 초청사업’을 통하여 각 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우수 문화예술인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공연, 강연, 전시, 워크숍, 간담회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사업은 음악, 미술, 서예, 사진, 풍물, 문예창작 등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문예총 소속단체가 차례로 기획, 준비하기로 하여, 전시, 공연, 창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있는 예술인들을 초청하고 인도네시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첫사업으로 문예총 공연분과가 중심이 되어 10월 12일 한인문예총 종합예술제를 계기로 무형문화재 ‘경기민요’ 공연(단장 국악인 이나

영)을 초청하여 한인커뮤니티 공연을 개최하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해 영상과 해설이 있는 우리 국악-민요 공연을 별도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문환 문예총회장, 이일하 공연분과 부회장, 사공경 문인협회장, 이수진 미술협회장, 김순재 음악협회장, 김주현 헤리티지회장, 최정순 루시플라워 장, 제경중 서예협회장, 장방식 국악사랑단장, 안영수 어린이합창단장 등 문예총 산하 단체장이 참여하여 함께하였으며, 김문환 문예총회장은 명사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재인니 한인 커뮤니티가 한국의 우수 문화예술인과 가깝게 만나고 교류하는 기회가 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다양한 우리 문화예술의 면모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OICA, "ICT 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지난 8월 6일 반둥공과대학교(ITB) Jatinangor 캠퍼스에 위치한 ITB-KOICA 사이버보안연구개발센터에서 "인도네시아 ICT 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사업"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보고회에는 우리 측에서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 및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이방무 서기관, 사업 PMC인 (주) MarkAny, 인니 측에서 고등교육국(DIKTI)

Djoko Santoso 총국장, ITB Akhmaloka 총장, 정보통신부(KOMINFO) Bambang Heru 총국장, 국방부(MINDEF) Timbul Siahaan 총국장 등 유관 기관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 및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KOICA가 총 550만 불을 지원한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자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니 고등교육국 및 ITB의 요청으로 2011년부터 4개년 간 추진되었다. KOICA는 반둥공대와의 협력을 통하여 사이버 보안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고급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위한 정규 석사과정 개설, 한국의 보안 기술 이전을 통한 연구 개발, 인니 사이버 보안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본 행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고등교육국 Djoko Santoso 총국장은 "한-인니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이 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인도네시아 IT분야 협력 및 지원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ITB Akhmaloka 총장은 "한국 정부에 의해 사이버 보안 기관으로의 인프라가 구축되었으



며 기술이전에 따른 주요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바, 이제는 ITB의 자체적이고 자립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수행해야 할 때"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하여 지속해서 공유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은 양국 간 협력이 만들어내는 시너지에 대해 언급하며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초석이 될 것" 이라고 평가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였다.

KOICA는 인도네시아 최초 사이버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 최초 정기적인 사이버보안 세미나 개최 등을 성공리에 완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향후 인니 보안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후속 지원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동 센터는 R&D 연구개발 및 교육 기관으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NGO 및 CSR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의 허브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OICA, CSR 프로그램 CJ 제과제빵학과 개원식

한 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CJ 푸드빌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CSR사업(기업사회공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제27국립기술고등학교(SMKN27)에서 CJ제과제빵학과 개원식 및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에는 우리 측에서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 CJ 푸드빌 정문목 대표이사 및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차용기 서기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인니 측에서 SMKN27 Sri Nuryah 교장, 중부 자카르타 교육청 Zaenal Soleman 중등교육과장 및 동 학교 학생과 교사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빵 전문 기술자 육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 제과제빵학과는 KOICA 글로벌 CSR 사업의 일환으로 CJ와 협력하여 국공립 실업계 고등학교 SMKN27에 개설되었으며, 제빵 전문 교육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 교육 과정 개편, 제빵 전문 인력 및 강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3학년 1, 2학기 정규과정으로 편성되는 CJ제과제빵학과는 성적 우수자에게 인도네시아 뚜레쥬르 취업에 우선 선발권을 부여하며, 조리법 현지화를 통한 최적화된 커리큘럼 구축과 동시에 기술교사 양성과 역량 강화에도 주안점을 두고 교육과정 컨설팅 및 강사 인증 자격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행사에서 Sri Nuryah 교장은 “인도네시아는 급격한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바, 급변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의 교육이 중요하며, 한국 정부와 CJ의 지원이 창의적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중부 자카르타 교육청 Zaenal Soleman 중등교육과장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교육 관련 예산을 20% 증대했으며, 자카르타 주정부도 전체 예산의 27%를 교육에 투입하는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중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이 우수한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고급 기술 교육에 이바지한 KOICA와 CJ에 감사를 표하고, 추후 다른 학교로까지 전문 교육이 파급되기를 기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베이커리 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8.9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구매력 상승과 소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향후 5년간 평균 11%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베이커리 기술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 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우수한 제빵 기술을 이전하고 교육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실업률을 낮추고, 지역사회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사업의 한-인니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5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전

‘잃어버렸던 나의 스크랩북을 찾아 발리에서 예술가의 꿈을 펼치다! 이것이 나의 인도네시아 적응기. 자바의 등지에서 사산도의 전설을 들으며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 찢따 인도네시아 사랑의 스크랩북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이해와 관용을 채색하며 세 번째 인생을 향해 자동차에 불이 났어요 소리치듯 뜨겁게 내 앞의 삶을 당겨 안는다.

자카르타의 젓줄 찢리웅 강가에서 인도네시아의 한국인, 공존을 이룬다. 사진 속의 아이들, 그 따사로움으로 황무지에서 나의 어린 스승들을 만나 제2의 고향 인도네시아, 마치 두리안처럼 나는 네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얀 갑보자 꽃 같은 하루가 있는 나의 두 번째 고향, 인도네시아 아, 삶으로 영혼을 노래할 수 있는 이곳은 인도네시아야라고 외치며 내일을 내딛는다.’

4회 공모전 수상작 제목을 모으니 한 편의 글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멋지고 야심 찬 마음들이 많이 참여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1.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2. 원고 모집 기간 : 2014년 10월 ~12월15일 (문화탐방기 / 생활수기)
3. 원고분량 : 산문 부문 - A4용지 2쪽에서~ 5쪽 / 시 부문 2편 이상
4. 대상 : 학생 (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일반인 (성인)
5. 보내실 곳 : love.indonesia@hotmail.com / manggis7@hotmail.com
6. 시상식 및 문화행사 2015년 1월 (일시 추후 발표)
7. 시상내역 : 일반부, 학생부 별도 시상

상명 상명	성 인 부		학 생 부		시상내역 시상내역
	인원	시 상	인원	시 상	
대상	1	주인니한국대사상	1	주ASEAN 대사상	상장과 부상
최우수상	1	재인니한인회장상	1	재인니상공회의소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	1	한*이니문화연구원이사장상	1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	1	한*이니문화연구원장상	1	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상장과 부상
장려상	3	한*이니문화연구원상	3	한*이니문화연구원상	상장과 부상

* 시상내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

후원: 재외동포재단 / PT.TAEWON INDONESIA / PT. PRATAMA ABADI

붙임 ; (글자모양=바탕체, 글자크기=11, 행간=160%)

- ① 응모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 ② 원고는 위의 지정된 e-mail로 응모할 것
- ③ 응모작품은 제출일 이전 미발표된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 ④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로 판명된 경우 당선이 취소됨
- 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021)527-3630 / 0816-190-9976/ 0815-8479-7879

sagong@hotmail.com / jemmachae@hotmail.com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슈퍼마켓 사업 첫 진출!

롯데마트 대한민국 유통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슈퍼마켓(호점 '끄망' 점) 오픈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진출 약 6년만에 슈퍼마켓 진출로 사업 확대

인도네시아 소매시장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평균 10% 가량 성장을 하며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롯데마트 역시 매년 두 자리수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롯데 슈퍼마켓 '끄망(Kemang)점'은 아마리스(Amaris) 호텔(지상4층) 1층에 약 1,300㎡(400평) 규모의 임차 형태로 입점하며, 자동차 141대, 오토바이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갖췄다.

주 고객층은 '끄망(Kemang)점' 반경 2km 이내 5만 1천여 세대, 20만 2천여 명이며, 불과 0.5km 근방에는 지역 슈퍼마켓인 캬치(Kemchicks)과, 2km내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슈퍼마켓 기업인 헤로(Hero)와 랜치마켓(Ranch Market) 등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끄망(Kemang)'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으로 호텔, 카페, 레스토랑 등이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중상류층 지역이다.

롯데마트는 이런 상권적 특성을 반영해 이들 경쟁 점포와 차별화를 위해 우선, 프리미엄 수입 상품을 대폭 강화하고, 베이커리 및 월드 메뉴 등의 먹거리 차별화에 나선다.

프리미엄 수입 상품으로는 유기농 야채, 프리미엄 Beef, 세계 맥주, 쿡킹 오일, 소스, 치즈, 유명 주방 용품 등을 취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6개 업체의 수입상품 전문 벤더를 확보했다.

또한 고객이 직접 토핑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샌드위치 등 27가지의 서양식 메뉴와, 한국, 일본 등의 동양 메뉴 24가지를 취급해 인근 상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입맛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르 빈티지(Le Vintage)' 라는 와인 전문 매장을 흡인숍 형태로 유치해 세계 각국의 200



여가지 와인을 맛 볼 수 있도록 매장을 구성했다. 특히, 약 3만여개의 상품을 취급하는 하이퍼 마켓과 달리 롯데 슈퍼마켓은 신선, 가공, 생활, 즉석 식품 등 1만여 가지 상품으로 압축 운영되며, 이 중 식료품이 전체의 70%인 7,000여 가지의 상품으로 구성된다.

인도네시아 롯데 슈퍼마켓은 "Fresh & Fun"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양하고 신선한 상품, 그리고 고객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주는 차별화된 슈퍼마켓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끄망(Kemang)' 점의 성공적인 오픈을 통해 우선적으로는 자카르타 및 지방 대도시의 주요 쇼핑몰 내에 우선 출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균 롯데마트 동남아본부장은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6년 동안 쌓아온 유통시장의 노하우와 3,000여개의 협력업체 및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번 롯데 슈퍼마켓 1호점을 오픈하게 됐다." 며, "기존 하이퍼 마켓의 성공 요소인 인적 융합, 현지화, 한국식 차별화 요소 도입을 통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는 슈퍼마켓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자연이 살아숨쉬는
분재.수석 전시회로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14년 10월11일(토)부터
10월17일(일)까지 반둥의
Kota Baru Parahyangan,
10월17일부터 10월19일까지는
Bali에서 동시 개최

“분재”란 하나의 분안에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것으로 생명이 있는 자연을 주제로 하는 예술이다.
“수석”이란 비바람과 물살에 오랜 세월로 일구어낸 아름다운 자연적인 돌을 말한다.

2년마다 열리는 전시회가 올해는 35주년을 맞이하면서 5년마다 대대적으로 열려, 분재 1,000점 이상, 수석 200점 이상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각국의 관계자도 참석하여 분재가지치기 시범과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분재.수석협회 전국회원은 약 50,000명이며, 지회(Cabang)도 150개나 되고, 본부와 각 지회에서는 2년마다 1회씩 전시회를 열고 있다.

분재로 승화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향기나는 생명체와 호흡하며, 억겁을 건디며 새롭게 태어난 천년의 수석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함과 섭리를 생각하는 자연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254회-256회 문화탐방

자바의 스위스, 가룻 (Garut)

일시	: 2014년 9월 16일(화) ~18일(목) 출발 16일 8시 (연구원에서 출발)
탐방지	: Papandayan 화산 / Kamojang 분화구/ Cangkuang 사원 / Kampung Naga 외
숙소	: Kampung Sampireun Resort
진행	: 박선이 수석팀장
회비	: 335만루피아
문의·접수	: 021) 527-3630, 0817-708-253, ballonjoa@hanmail.net





대한민국 ROTC

동남아총연합회 창립총회

JAKARTA - 2014

일시 : 10월 25일(토)

장소 : GRAN MELIA HOTEL



주최 : 대한민국 ROTC 동남아총연합회

주관 : 대한민국 ROTC 인도네시아 지회
(사무국 : +62 811 - 816 - 459)

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국가에 충성, 국민에게 봉사! 사랑받는 ROTC.”



朴興植개인전

2014.09.18-24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

address
Indonesia Korean Cultural Center
Equity Tower 17th Fl. Jl. Jend. Sudirman, SCBD, Lot9, Jakarta, 12190
phone +62-21-2903-5650/5649

박흥식
1956부산産 / 홍익대학교미술대학졸업 / 개인전25회(1982-) /
한인미술협회 설립, 1, 2대 회장 및 고문역임(인도네시아)
한국미술협회회원 / GROUP수르뚝회원
☎ +82-1066869887
email artphs@naver.com
blog http://blog.naver.com/artphs

opening - 9.18(목) 오후8시
이 엽서로 초대장을 대신합니다.



DANIEL 'SCAPE' 2014 - JAKARTA

Indonesian Heritage Society
Korean Section



헤리티지 정기 총회 9월 개최예정

일시: 2014년 9월 17일 9시반 ~ 11시반(간식및 음료제공)
12시 점심 식사 후 해산(점심 제공)
장소: 에라스무스 하우스(네덜란드 대사관)

1년 동안 개최하는 헤리티지 행사중에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헤리티지 정기총회에서 한국인도 외국인들과 함께 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이날 코리안 섹션도 정기총회를 열어 모든 회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헤리티지의 활동에 관심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참가 신청 : irenesujin@hotmail.com

문의 : 김주현 0858 8534 6534 이수진 0816130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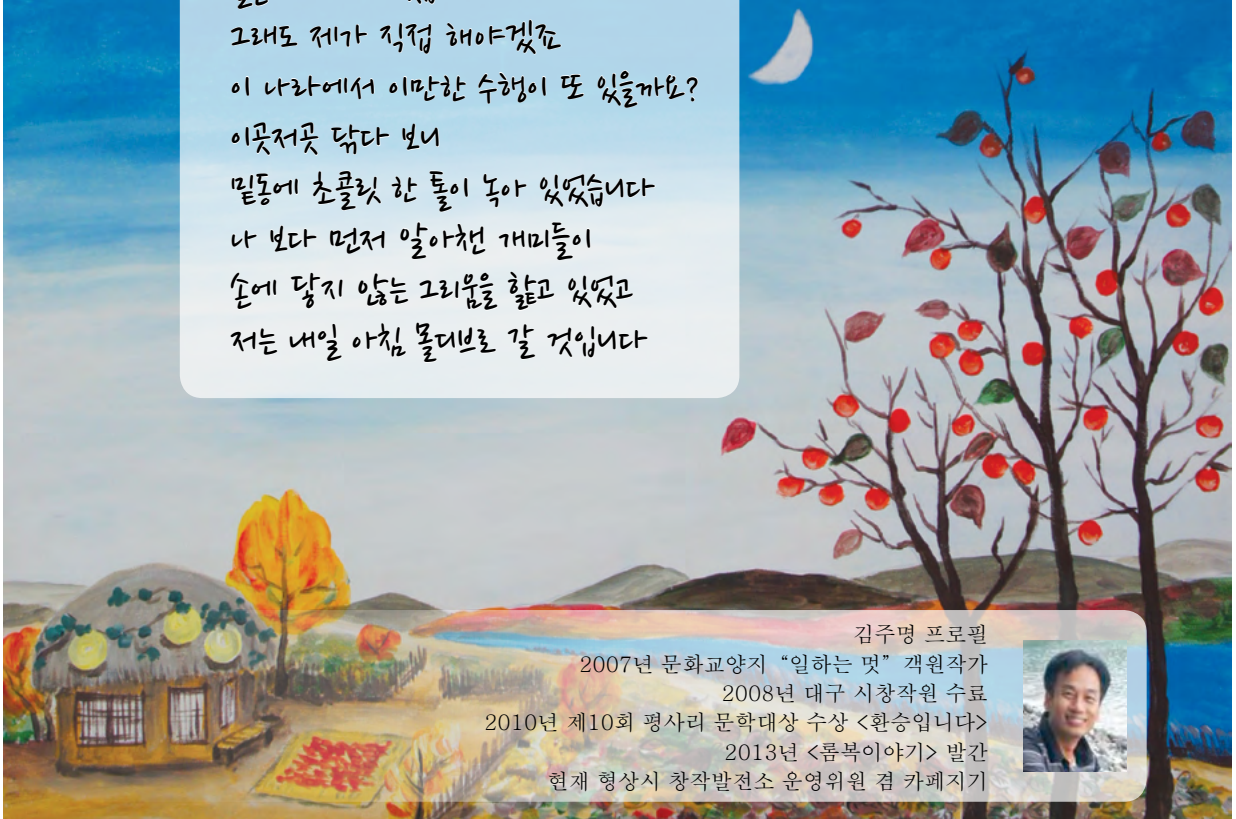
제2차 헤리티지 탐방 센톨 산책로 탐방

일시: 2014년 9월 19일 (금) 8시 --1시
장소: 센톨 시티 톨 나간뒤 좌측 200미터 주유소
회비: 50,000 루피아
회원 가입 필수 -- 연회비 (개인 30만 루피아/ 가족 60만 루피아)
신청 접수 -- irenesujin@hotmail.com 문의-- 이수진 08161300210

성가신 일상(日常)

시 : 김주명 / 그림 : 이태복

몰디브에 가 본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래도 외출 할 때면 구두를 신습니다
슬리퍼가 일상인 적도에서
저만한 자존심이 또 있을까요?
여기는 곤충의 천국입니다
언제부터 개미들이 차에 달라붙었습니다.
한 두 마리인가 싶었는데
혹 불면 또 나타나고
혹 불면 또 나타나고
줄지어 감히 무임승차 하다니
끝내 세차를 했습니다
물론 세차장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해야겠죠
이 나라에서 이만한 수행이 또 있을까요?
이곳저곳 땀다 보니
밑동에 초콜릿 한 톨이 녹아 있었습니다
나 보다 먼저 알아챈 개미들이
손에 닿지 않는 그리움을 핥고 있었고
저는 내일 아침 몰디브로 갈 것입니다



김주명 프로필
2007년 문화교양지 “일하는 멋” 객원작가
2008년 대구 시창작원 수료
2010년 제10회 평사리 문학대상 수상 <환승입니다>
2013년 <롭복이야기> 발간
현재 형상시 창작발전소 운영위원 겸 카페지기





2014년 8월 월간 경제 브리핑

현재 브라보워에 기각 판결...조꼬위 대통령 취임 확정!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패배한 브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가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21일 오후 8시 45분경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조꼬 위도도-유습갈라 후보가 공식적으로 신 정부(2014-2019)의 주인공이 됐다. 인도네시아 제 7대 대통령에 조꼬 위도도가 확정되며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주적 정권이양이 실현된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장 함단 줄바는 판결에서 “브라보워 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기각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6일부터 심리를 진행해온 이번 재판은 21일해야 끝났다.

조꼬 위도도의 공식 대통령 취임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조꼬 위도도와 유습갈라는 21일 밤 10시경 자카르타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를 공식 방문하고 정책논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브라보워 수비안또와 하따 라자사는 이날 현재의 기각 판결 이후 저녁 7시경 자카르타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연합 정당 대표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골카르당 소속 이르두스 마르함 사무총장은 “회의에는 아부리잘 바끄리 골카르당 총재, 수르야다르마 알리 PPP총재, 까반 PBB총재, 아니스 마따 PKS 총재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이 대체로 안정적인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진 데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벌였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샀다는 평가도 많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문제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선거관리위원회(KPU) 및 유관기관은 책임을 제대로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유관기관 관계자 대규모 해고를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브라보워 후보가 주장한 대규모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브라보워 진영에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9명의 재판관의 전원 합의에 의해 이와 같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꼬 위도도는 지난 7월 9일 치른 대선에서 53%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브라보워 후보와 800만표의 득표차를 기록해 승리했다.

한편 이날 현재 발표에 대해 반대시위를 하던 시위대 중 46명이 병력과의 충돌로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메단 르르데까 바랏 대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소득 5억 루피아 이상이라면...내야하는 세금 얼마?

조코 위도도 정권 하 부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부담이 높아질 예정이다.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의 헨드라완 수쁘라띠노는 24일 “개인 소득 5억 루피아 이상의 부유층 대상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 이라 밝혔다. 조코위 정권의 세수 확대 전략 중 하나는 부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다. 신정권은 연간 개인 소득 5억 루피아 이상인 고소득층에 대해 세수를 확대할 전망이다.

현지언론 콤빠스 25일자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APBN)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밝힌 내년도 세수 목표는 1,370조 8천만 루피아이다. 이는 올해 수정예산안 세수 목표 1,246조 1천억 루피아보다 10%나 확대된 것이다.

한편 조코위-칼라 정부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송금하는 기업에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온라인 결제서비스도 마련하고 있다. 투쟁민주당 당원이자 사업가인 끄리스띠안또 위비소노는 온라인 세금지불에 대해 “매우 편리한 세금 징수 방법” 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세 전문가 유스티누스 뿌라스또위는 조코위 정부가 세금 구조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예를 들어 건설부문은 최종적으로 소득에 대한 2%의 직접세(PPh)만 내지만 건설 부문은 수익(laba)에 대해 25%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주장했다.

이 밖에 연간 소득 2억 5천만~10억 루피아의 개인에게는 직접세를 15~20%를 적용하고, 10억~50억 루피아는 30%, 60억 루피아 이상은 32~35%를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조세 전문가 다루살람은 “조코위-유슈프 정부는 조세 징수 대상과 부문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며 “그간 광업, 무역, 가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만 집중했던 조세대상에서 산업부문을 추가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나가야 조세 규모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외자건설회사 규제강화, 10월까지 새 법령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는 현재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10월까지 외자건설회사로의 규제강화를 포함한 새 법령을 공포한다.

내년 ASEAN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해외기업의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사업 장관령 '2011년 제5호'를 개정하여 공동기업체(JV)에 있어 지역기업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JV에서의 인도네시아인 종업원의 역할과 건축자재의 현지조달율에 하한이 마련된다. 국내 건설 설계 및 제도 의무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지 종업원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3일자에 따르면 건설국의 헤디안토 국장은 "외자규제에 대한 기준은 철저히 하지만, JV에 대한 지역기업의 발언권이 작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 법령 도입으로, 기술이전 촉진과 인도네시아인 노동자의 스킬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공공사업분야로의 외자 출자비율은 건설컨설팅회사가 최대 55%, 계약액 10억 루피아 이상의 사업을 다루는 건설서비스가 최대 67%, 상수 및 고속도로가 최대 95%로 정해져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자건설회사는 이번 달 시점을 기준으로 298개사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 3개국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자카르타 정부는 트랜스자카르타에 E티켓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이용객이 E티켓을 들여보이고 있다.



2. 지난 6일 수라바야 소재 동부자바 KPU 청사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 가스과 물대포를 쏘며 상제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보테따백 부동산 가격 급증... 고속도로 건설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 확장에 따라

최근 자카르타 외곽인 자보테따백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 확장으로 부동산 값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포털사이트 라무디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자카르타 시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프라와 교통수단을 개발하여 대중교통수단이 향상되고, 특히 서부자바 브카시의 거주 지역의 부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라무디는 또한 자카르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주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라이프와 부동산과도 매우 연관성이 깊다고 전했다.

공공사업부처는 최근 서부 자카르타 울루자미아 찰르독을 연결하는 W2 North 자카르타 외곽순환도로 (Outer Ring-Road)의 마지막 구간을 오픈했다. 외곽순환도로는 오는 10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외곽순환도로 건설 개통에 따라 자보테따백 지역과 땅으랑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카르타 외곽순환도로는 동부 자카르타 로로탄, 북부 자카르타 뽀자링안을 연결되며 공항 근처의 찰까백, 자고라위, 땅으랑, 세드야뜨모 지역과 연결된다. 라무디에 따르면 자카르타 외곽순환도로와 찰바뚜 고속도로 건설로 주변 땅 가격이 치솟았으며, 자카르타 대부분 지역의 땅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찰바뚜 고속도로 인근의 부지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30% 올랐으며 중부자카르타, 남부자카르타, 북부자카르타의 땅 값은 동기대비 19.5~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라무디 부동산 전문가들은 JORR2 외곽 순환도로 주변의 땅값은 25%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곽순환도로와 찰바뚜 고속도로 건설로 약 15~20%의 통행시간 단축을 기록했다.

찰바뚜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교통혼잡이 7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자바베카에서 리뽀찌까랑 거리는 30분만에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아후 주지사 대행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 긍정적인 소감을 나타내며, 자카르타부동산은 지금까지 동남아 지역에서도 저평가 되어왔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보호재단의 수다리아뜨모는 “부동산 가격 급증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곤란케 할 것”이라며 “사람들의 소득보다 부동산 땅 값이 더 빠르게 올라간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사람보다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또는 집마련이 상대적으로 쉬운데, 대표적으로 남부 자카르타의 저가 아파트인 깔리바타 아파트 또한 중,고소득층 소득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은 충분한 주차시설 공간을 미리 계산하지 못한 채 지어져 항상 만원이다” 고 설명했다.



PT. Doosan Cipta Busana Jaya



배도운 대표

세계 패션 의류 생산의 중심, 두산

PT. Doosan Cipta Busana Jaya 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1998년 현 CEO인 배도운 대표께서 설립하신 봉제 회사로써, 2014년 현재 기준으로 PT. Doosan Jaya Sukabumi를 비롯하여 6개의 공장에 한국인 60명, 외국인 5명, 인도네시아인 약 10,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 미국, 미얀마, 베트남 등 세계 각지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등의 유명 브랜드의 오더를 받아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마케팅하며 관리 및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이 생산하는 브랜드는 H & M, AEO, MANGO, Uniqlo, Forever21, Sears, K-mart 등이며, 2013년 US \$200,000,000 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15년에는 West Java 지역 Kuningan에 PT. Kuningan을 신축 설립할 예정이다. 전체 규모는 총 6개 본 공장에 약 100개의 봉제생산라인과 5개의 봉제협력공장을 한 개의 수출공단으로 설립할 예정이며, 현지인 약 10,000명을 신규고용하여 2016년 연간 매출액 US\$300,000,0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업계의 수출을 장려하여 정부차원에서 선진섬유기술의 개발, 노후 설비의 개선, 전문인력 양성, 클러스터의 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섬유 업계에 큰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또한,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IMF의 보고서(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2013)에 따르면 적어도 2025년에는 대한민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다.

인도네시아 직원들은 손재주가 뛰어나며, 요령을 피우지 않고 지시를 비교적 잘 따른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였고 지금까지 빠른 성장을 기반으로 지금이 이르게 되었다.

PT. Doosan은 글로벌 의류 시장에 맞춰 발 빠르게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세계 수준에 맞는 양질의 의류 생산을 통해 고객에게 수준 있는 의류를 생산해오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에는 두산의 브랜드화를 통해 PT. Doosan만의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의 두산의 미래이며 목표이다.

두산 브랜드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4년 미국의 여성의류 Brand 를 인수하여 미국시장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두산의 봉제생산 Know-how 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Target 고객층을 확대하고 Brand 를 다변화하여 글로벌 의류 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일반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질환과 응급처치

1. 급성 심근 경색

심장 근육으로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히거나 경련이 유발되어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심장 박동이 멈출 수 있다.

(1) 급성 심근 경색이 유발될 때 발생하는 흉통의 특징

다음과 같은 특징적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응급 조치 및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

- 불편한 흉부 압박감, 뭔가 가슴이 꽉 차는 듯한 느낌,
-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 쥐어 짜는 듯한 느낌,
- 가슴 중앙부 통증이 수분 이상 지속되거나 등, 어깨, 팔로 방사하는 경우
- 흉부 불편감과 두통, 실신, 발한, 오심 및 호흡 곤란이 유발되는 경우

(2)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1) 즉시 119에 신고

119 구급대에는 심장에 치명적인 부정맥인 심실 빈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자동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 환자의 기도유지, 호흡, 맥박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인명 구조술을 시행한다.

3) 환자가 가장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앉은 자세에서 무릎 아래에 베개를 집어 넣고, 목 주위의 의복을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4) 주변을 조용하고 편안하게 해준다.

5) 환자가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복용하는 환자이면 혀 밑으로 약을 넣어 준다.

- 환자의 약은 반드시 본인의 약이어야 하며, 타인의 약을 쥐서는 안 된다.

-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

으므로 설하 투여 시 환자는 반드시 앉거나 누워서 약을 투여하도록 한다.

- 10분 이내에 3번 반복 투여할 수 있으나, 반복 투여 시는 약의 강도가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6) 산소 공급이 가능하면 산소를 투여한다.

2. 협심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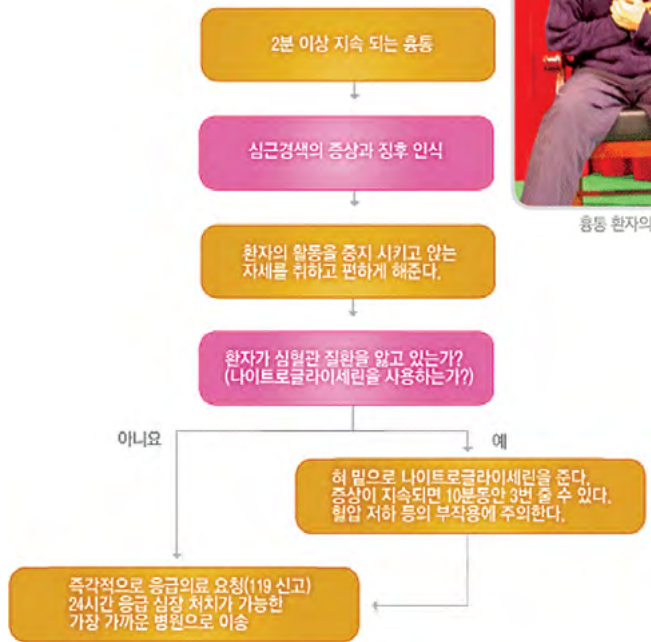
-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가지 못해 발생하는 흉부 불편감 혹은 통증을 말한다.

신체적으로 무리한 경우, 추위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과 식 후에 잘 발생된다.

- 특징: 1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없으며, 거의 대부분 나이트로글라이세린에 통증이 없어진다.



흉통 환자의 모습



흉통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흐름도

심근 경색의 흉통의 경우와 달리 협심증인 경우 대부분 활동 중에 나타난다.

- 응급처치는 심근 경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행한다.

3. 뇌졸중

(1) 뇌졸중의 특징

일반인들이 중풍이라고 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뇌졸중은 혈전으로 막혀 피가 통하지 않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뇌 조직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뇌출혈,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 뇌졸중 환자 응급처치 포인트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기능이 정지되고, 수 분내 세포가 파괴된다.

이런 세포파괴가 일어나는 경우 그 기능은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뇌졸중을 빨리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면 뇌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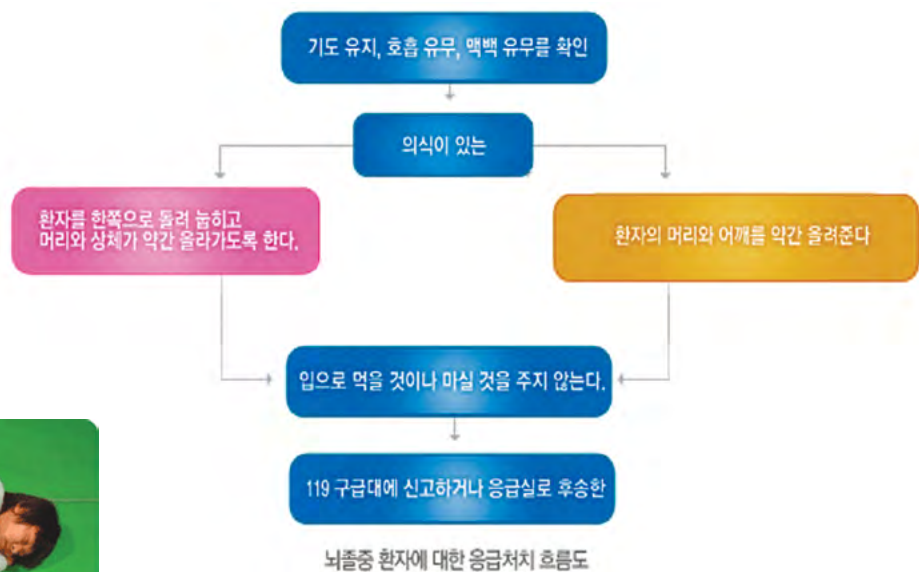
여러 연구가 있으나 대략 뇌졸중 발생 이후 3시간 이내에 약물 치료를 할 경우 뇌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뇌졸중 위험 혹은 의심 증상

- 1) 얼굴, 팔,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 감각해지거나 약해 지는 경우, 특히 신체의 한 부분이 그럴 경우에는 뇌졸중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 2) 갑작스런 혼동상태를 보이거나, 말을 하는데 장애를 보이거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 3) 갑작스러운 한쪽 혹은 양쪽 시력 저하
- 4) 갑작스럽게 잘 걷지 못하거나, 어지럽거나, 균형감각이 없어 질 때
- 5)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두통이 생긴 경우

(3) 해야 할 응급처치

- 1) 환자의 기도 유지, 호흡 유무, 맥박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 인명 구조술을 시행한다.
- 2) 119 구급대에 신고한다.
- 3) 환자를 편안한 곳에 눕힌다.
- 4)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토하는 경우는 환자 몸을 좌측으로 돌린다(회복 자세- 그림 5-3).
- 5) 환자에게 절대 음식물이나 물을 먹이면 안 된다.
- 6)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호흡과 맥박 유무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회복자세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흐름도



자유와 평화의 꿈을 실현한 사람들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떠나온 것에 대한 아쉬움과 두고 온 기억들에 대한 향수 때문일까? 젊은 시절 한국에 살 때와는 달리 고국을 향한 애착심은 더욱 커지는 것만 같다.

오랜 세월, 우리나라를 떠나와 해외에서 살다보니 무엇보다 국가관이 뚜렷해져 저절로 애국자가 되는 느낌이다. 인도네시아 라마단 휴일을 겸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서울의 거리 곳곳에는 다가올 8.15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한 태극기가 필력이고 있었다. 모처럼 한국에서 맞이하는 광복절이기에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뜻 깊은 발걸음을 해보기로 하였다. 오래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독립공원과 서대문형무소 역사

관을 찾았다. 독립과 민주화운동의 현장이기도 한 이곳은 자유와 평화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많은 애국지사가 고초를 겪었던 곳이다. 마침 애국지사들의 항일투쟁과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민주축제가 한창이었다.

개화운동의 선구자이며 독립운동가인 송재필 선생에 의해 세워진 독립문이 우뚝 서있다. 최근 한류의 바람을 타고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상징하듯 단단한 벽돌의 독립문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독립문 안으로 들어가 쪽 올라가면 빨간 벽돌로 길게 뻗어있는 서대문형무소 건물이 보인다.

지금은 전체가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붉은 색의 그다지 높지 않은 건물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자리하고 있었는데 초록의 나무들로 가려진 건물들은 유난히 담벼락이 높았다. 일제강점기에 펴박받던 형무소였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였다.

서대문형무소의 제일 큰 건물인 중앙사는 옥사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다른 건물의 옥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1923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형무소였다는 선입견 때문인지 스산한 바람이 스쳐지나간다. 이곳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까지는 주로 독립 운동가들이, 해방이후에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수감되어 모진 고문과 고통을 겪었던 곳이다. 광복절인 오늘은 독립민주축체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린 학생들과 부모, 그리고 학교단위로 온 단체학생들이 많았다.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고 들으며 메모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중앙사전시관에는 애국지사들의 옥중생활을 알 수 있는 일기와 편지 등이 소개되었다. <상록수>를 쓴 소설가 심훈의 일기가 눈에 띄었다.

서대문형무소의 높은 문은 개선문과도 같다고 표현했다. 그만큼 담담했던 심훈도 한 달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돌담은 화로 속처럼 달고 방속에는 뚱뚱이 끓는데, 빈대며 벼룩이 다투어가며 살의 진물을 살살 뜯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애국지사들의 눈빛은 셋별처럼 빛났다고 씩어 있었다.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동안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조차도 진정으로 마음을 담지 못했음이 새삼 부끄러웠다.

일제강점기에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유명을 달리한 이 곳, 서대문형무소의 거대한 옥사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일제가 이곳에 근대식 감옥을 세우게 된 계기는 서대문이 당시 정치와 교통의 중심지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과 공포의 상징인 감옥을 통해 식민지인 조선이 일본에 대한 복종을 강요했는지도 모른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애국지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일제는 1912년 서

대문감옥에서 1923년 서대문형무소로 명칭을 바꾸어 그 규모를 확장했다. 그리고도 모자라 일제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주요거점 도시 곳곳에 감옥을 설치하여 우리민족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였다. 아마도 나라 전체가 감옥 화되기를 그들은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순간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분이 치솟았다.

무단통치의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으로 시작된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서울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졌고 해외까지도 이어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태극기를 흔들며 외치는 비폭력 만세운동이었지만, 일제가 무력으로 진압을 하였기에 무기를 들고 치열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그때의 서대문형무소의 수감인원은 3천명에 육박하였다고 하니 거족적인 민족운동의 생생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계기로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5.4운동,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 및 이집트, 터키등지의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나도 그 시절에 존재해 지금처럼 해외에 살았다라면 조국의 독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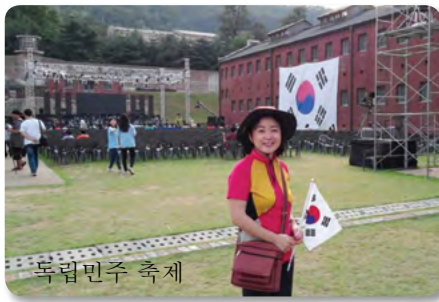
독립문



순국선열 추념탑



형무소 내부



독립민주 축제



통곡의 미루나무

위해서 미력한 힘이라도 보탬을 텐데...하는 허망한 생각마저 든다. 또한 일제는 민족말살정책으로 1938년부터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어학회>라는 애국단체는 한글보급을 통해 민족의식을 잃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중 조선어학회 회원인 정태진선생이 일제에 발각되어 조선어학회는 강도 높은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이일로 최현배, 이극로 등 33명이 서대문형무소에서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 결국 함흥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나는 지금 이렇게 우리의 한글을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온다.

서대문형무소 보안과 건물 지하에는 주로 독립운동가들을 취조하던 곳으로 취조과정에 심한 고문이 이루어졌다. 지독한 고문과 인권탄압이 벌어지던 곳, 그때의 건물을 돌아보았다. 수감자들은 이곳을

지하고문실 또는 지옥의 계호계라고 불렀다고 하니 다시 한 번 일본 제국주의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1923년에 지어진 사형장은 1987년 서울구치소가 이전할 때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곳이다. 사형장에는 비록 죽음을 앞두었지만 당당한 애국지사들의 외침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분들의 아픔과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자유와 평화의 꿈을 뒤로 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독립운동가들... 아직도 그 슬픔을 알고 있을 것 같은 통곡의 미루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사형장 담장 안팎에는 두 그루의 미루나무가 있는데 둘 다 사형장을 짓던 시기에 함께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담장 안쪽의 미루나무는 애국지사들의 한이 서려서 잘 자라지 못했다는 비화가 전해진다. 담장 밖의 미루나무는 조국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야 했던 애국지사들의 원통한 눈물이 베어있다고 해서 일명 <통곡의 미루나>라고도 불리운다.

그 설움과 한을 어찌 자연인 나무인들 외면할 수 있었으랴.

특히 이곳 서대문형무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여옥사(여자옥사)라는 곳인데 1992년 서대문 독립공원 조성당시 옥사 터가 발굴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일제는 늘어나는 여성독립 운동가를 수감하기위하여 1918년 무렵 여옥사를 지었다. 이곳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가 투옥되어 1920년 9월에 옥사, 순국하였던 곳이다. 여성애국지사들의 독립의 꿈과 한이 서린 곳이라고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같은 여성으로서 그들이 견디었던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어느새 물기어린 내 눈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살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애국지사들의 덕분이라고... 자유와 평화의 꿈을 뒤로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서대문형무

소에서 순국한 순국선열들의 얼과 혼을 기리는 추모비 앞에 섰다. 손병희,한용운,유관순등 모두 합쳐 195명의 순국선열들의 추모탑이 청명한 하늘과 마주하고 있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 이라고 한다.

내 조국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청춘을 희생했던 애국지사들의 순결한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한국에서 머무는 곳에 독립문과 또 그분들의 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런 상념에 젖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늘따라 그분들의 업적으로 더욱 환하게 빛나는 달빛이 거리를 비춰 주고 있었다.



서대문 형무소 순국 유관순 열사



서대문 형무소 전경

6일간의 추억, 아세안 스쿨투어!



한별초등학교 / 나세진

8월 9일, 나는 아세안 스쿨투어 프로그램으로 인도네시아에 갔다. 평소보다 3시간정도 일찍 일어났지만, 여행의 즐거움에 알람도 없이 저절로 눈이 떠졌다. 5시20분쯤 청주 MBC 방송국에 도착해 인천국제 공항으로 직행, 드디어 미소의 나라 인도네시아로 떠났다.

펜팔 친구는 어떨까?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면 어디를 갈까? 음식은 입에 맞을까? 비행기랑 에볼라 바이러스는 안전하겠지? 등의 기대와 걱정을 안고, 3시 40분쯤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했다. 처음 도착한 후 인도네시아의 첫인상은 '혹' 하고 더운 찜통 더위였다. 하지만 버스 에어컨의 바람을



맞자 서서히 주변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바라본 삼성 광고들이 인도네시아까지 우리나라 회사들이 진출한 것을 보고, 자랑스러우면서도 신기하게 보였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둘째 날, 이스띠끄랄 모스크라는 동남아 최대 이슬람 사원에 방문했는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구가 1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내가 인도네시아를 오면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조사하며 가장 궁금하게 느낀 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국가라는 것이었다. 내부에 사진처럼 12개(무하마드의 생일)의 기둥이 있는데, 정말 신비하고도 아름다웠다. 또 맞은편에 지은 지 100년이 넘는 가톨릭 대성당이 있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자유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셋째 날에는 몇 달 전 펜팔을 주고받았던 친구 벨라 아나다를 만났다. 만나자마자 나에게 환하게 웃어주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왜 미소의 나라인지 알 것 같았다. 좋은 교육환경이 아닌데도 밝

게 지내는 친구들을 보니 멋졌다. 그리고 친구랑 선물도 주고받았는데, 예쁜 가방을 선물 받아서 좋았다. 다음에 또 이메일로 오랫동안 펜팔을 하고 싶다.

넷째 날에 간 ‘땅꾸반빠라후’ 화산에서 라뚜 분화구에서 도마스 분화구까지 트래킹을 했는데, 샌들을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은 게 후회가 됐다. 왜냐하면 양말이 젖을까봐 친구들은 유황 물에 발을 담갔는데 그냥 보고만 와서 너무 아쉬웠다. 그 대신 도마스 분화구에서 유황으로 삶은 계란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은 달걀 중에서 최고의 맛이였다. 화산 트래킹은 힘들 거라는 예상과 달리 색다른 곳에서의 등산이라 시간이 금방 갔다. 내려오



던 도중 내 또래 정도의 남자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날 일이다. 버스 창문으로도 여러 번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르다고 느꼈고, 아이들의 건강이 조금 걱정됐다.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이었다. 여행기간이 길어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그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다. 첫째 날 먹었던 요리는 인도네시아가 섬나라라서 그런지 생선튀김과 새우, 밥, 야채종류도 맛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입맛에 맞았던 것은 코코넛 음료다. 하지만 솔직히 밤에 수영하고 와서 먹은 컵라면은 한국에 대한 향수와 함께 정말 반갑고 맛있었다. 인도네시아에는 먹을 것도 많은 것 같다.

이번 스쿨투어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다. 그중에서도 펜팔친구 벨라 아나다를 만나 해맑게 지냈던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인도네시아를 갔다 와서 사진 속에 남은 벨라의 미소를 보며, 평소 무표정하게 다녔던 내가 반성되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 어색했던 몇 분, 친구의 미소를 보며 긴장감은 사르르 녹아버렸다. 엄마께서 여행하기 전 “너희는 어린이 외교관이야. 한국을 대표해서 좋은 인상 남기고 와” 하고 부탁하셨는데, 도리어 친구의 미소를 보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나도 벨라처럼 앞으로 항상 미소를 띠고 웃으며 살아야겠다. 또한 인도네시아라는 미지의 나라에서, 내 친구가 사는 미소의 나라 인도네시아가 더 친근감 있게 느껴졌다.



“만나서 반가웠어. 벨라 아나다. 아세안은 내친구야!”





수로빠띠 공원(Taman Suropati)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도심에 위치한 수로빠띠 공원(Taman Suropati)은 작지만 잘 정돈되어 아침저녁으로 조깅을 하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또한 느긋하게 앉아 예술적인 아세안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는 휴식의 장소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그림이나 조각품을 파는 거리의 예술가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공원 부근에는 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1920년대 집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폴란드·뉴질랜드 대사관저가 있고, 고위 관료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공원의 이름은 발리 노예 출신의 독립 영웅 수로빠띠(1660년생)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수로빠띠의 주인 Moor 장교는 수로빠띠로 인해 성공과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운똥(Untung, 행운)’을 그의 이름 앞에 붙여 주었다. 그러나 수로빠띠는 주인의 딸인 Suzane(수잔느)와 사랑에 빠졌고 20살 때 비밀 결혼을 한다. 분노한 주인장교는 그를 감옥에 가

둔다. 1684년, 그는 포악한 주인에게서 도망쳐 다른 곳에서 도망친 노예들과 조직을 만들어 VOC 군대를 공격한다. 나중에는 자바인들과 합세하여 치열한 독립 운동을 한다. 1706년 10월 17일 방일(Bangil) 요새에 일어난 전쟁으로 운똥 수로빠띠는 조국과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하고 한(恨) 많은 세상과 이별하게 된다. 본인의 죽음을 타인에게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아, 그렇게도 꿈꾸던 자유는 저물어 버린 하늘이 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일반 무덤과 달리 무덤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1707년 VOC 군인들이 수로빠띠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태워 바다로 버렸다. 그와 그의 후손들이 다스렸던 동부 자바에 18세기까지 독립된 영역이 유지되었다고 한다. 그는 1975년 11월 3일 국립 영웅 추대된다.

한편 이 공원은 아세안조각 공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동남아시아 협력기구) 왜냐하면 수로빠띠 공원(Taman Surapati)의 추상적인 조각들은 아세안 가입 국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 방콕에서 동남아 국가들 간의 비정치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만들었다. 경제와 사회발전 그리고 문화영역의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가입 국가는 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브루나이 이다. 현재는 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가 가입하여 총 10개국으로 아세안은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과 아세안이 교류한지는 올해 25주년으로 자카르타에서 기념 세미나·전시회·아트전이 계속 열리고 있다. 아세안은 당시 인도네시아의 외무부 장관이던, 아담 말릭이 제안했다. 그는 후일 3대 부통령이 된다. 아세안 국가들은 사회전반에 걸쳐 교류가 활발했다. 특히 문화교류가 많이 이루어졌고, 국영방송(TVRI)에 방영되곤 했다. 민속 춤 등이 공동 전시회나 심포지엄 등이 있을 때 공연되었다. 1980년에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한 심포지엄이 방콕에서 열렸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족자 출신 무지오노를 대표로 파견했다. 1982년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2차 심포지엄에는 반둥의 예술가 수나르노(Sunaryo)가 참석하였다. 심

포지엄이 회를 거듭하면서 아세안 기념물 건립이 논의되었다. 수로빠띠 공원이 선정된 것은 키 큰 나무와 블록으로 울타리가 쳐있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또 근처에 예술공원(TIM)과 자카르타예술학교(IKJ)가 있어서 워크숍 등이 쉽게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 기념물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아세안의 예술가 특히 조각가들의 연대를 강화한다. 둘째, 아세안의 단결을 상징함과 동시에 각국의 다양한 전통을 내재한 예술품을 창조한다. 셋째, ASEAN 동상 형태와 예술품 속에 ASEAN 예술인 사이의 경험과 생각을 교류하고 많은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예술품을 통해 경험과 창의성을 교류하고 많은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아세안(ASEAN)의 정신은 전시된 6개 조각의 제목으로도 알 수 있다. 즉 우정(태국), 평화(인도네시아), 싱가포르(ASEAN의 정신), 평화, 조화, 통일(말레이시아), 조화(브루나이), 부활(필리핀)이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 간의 우정, 평화, 화합,

그리고 발전을 상징한다. 지금까지 자카르타의 조경부가 이 조각을 관리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온 “부활(REBIRTH)”이라는 제목의 조각은 남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땅속에 16개의 통나무를 심은 모양이다. 이 통나무는 마치 땅에서 솟아난 듯하다. 이 조각은 통나무의 집에 설치되어 있다. 재료는 그레다르 산 자뭇 나무다. 조형물의 크기는 2.5M, 넓이 1.5M, 길이 2.7M이다. 부르나이 다룰살람의 조각은 그 가운데 부르나이의 심볼이 있어 아세안의 상징과 비슷하다. 재료는 철 판이며, 균형(Harmomi)이라 이름 붙여졌고, 아세안 국가 간의 삶의 균형을 나타낸다. 태국 조각은 성별이 잘 나타나지 않은 두 사람이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다. 재료는 흙포사이트라는 돌로서부 자와의 빠다라랑산이다. 동포애를 상징하는 ‘freniteny’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높이 3.3M, 넓이 1.5M. 무게 100Kg이다. 인도네시아 조각은 사람의 모습인데, 균형 잡힌 꼬여 있는 사람 형상이다. 재료는 황동. 빠스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평화를 의미한다. 높이 6M, 넓이 3M, 무게 1Ton이다. 싱가포르 조각은 하나인 장대 형태나 여섯 개의 기둥에 받쳐져있다. 여섯 개의 기둥은 초창기 아세안 회원국 나타낸다. 재료는 바뚜 버튼. “The spirit of Asean” 이라 이름 붙여졌고, 높이는 6.096미터, 폭 3.658M, 넓이 3.048m이다. 말레이시아 조각은 “빠스짜” 라 이름 붙여졌는데, 균형과 오라(Ora)를 상징한다. 일본에서 기

원한 이 기념물은 다른 것과 좀 다른데 전통의 오로가니 형태. 재료는 금속, 높이 2.5M, 폭 3.05M, 넓이 3.05M, 150Kg이다. 식민 시절부터 있었던 이 공원은 이처럼 6개의 아세안 동상이 있기에 더욱 아름다울 뿐 아니라 예술적으로 보인다.

수로빠띠는 공원에서 아세안의 정신과 함께 못



다한 꿈과 사랑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수잔느, 사랑하는 이여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며 오늘도 수로빠띠 공원에서 우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조각들과 함께 그의 저물어간 하늘은 부활하고 있다.

Jl. Diponegoro/ Jl. Imam Bonjol 교차로





자무 Jamu (3)

백진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자무(Jamu)를 단순히 식물성 의약품 (Herbal medicine)이라고 정의하기엔 그 범위가 너무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한약과 구별되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무를 굳이 정의하자면 전통약용식물을 이용하여 신체의 건강을 지키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고대 자바인들의 지식 체계와 미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접근법 (Holistic approach) 에서 유래한 여러 형태의 처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용식물의 좀 더 광범위한 사용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각에선 자무의 적용 영역을 세분화 해서 (Tilaar et al. 1992)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 치료약 (medicine), 2. 건강 보조재료 (health-care), 3. 미용 재료 (beauty-care), 4. 음료 (tonic and beverage), 5. 체력 증진 및 면역 증강제 (body's protection or endurance)]

Obat Kuat

흥미롭게도 자무 중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돋보이게 하며 건강한 성생활 유지를 위한 제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전통자무의 약 50퍼센트 정도가 남녀의 성기능 향상과 성 건강 유지를 위한 자무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드름 치료제나 다이어트제, 가슴이나 엉덩이를 커지게 하는 자무의 수요도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갈리안 싱셋 (Galian Singset) 이라는 자무는 여성의 날씬한 몸매 (S 라인)를 만들어 주는 자무 제품군들이고 세햇 르라키 (Sehat Lelaki)는 남성의 건강한 신체 유지와 성기능 향상을 위한 제품들로 유명하며 많은 회사들의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질환의 치료와 개선과 임신, 출산, 산후조리에 사용되는 자무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무스틱이라고 불리는 Sari Rapet 같은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성 건강유지를 위한 자무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이러한 제품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자무가 고대 솔로왕국에서 유행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왕이 많은 부인들을 건사하기 위해 정력과 스태미나의 유지가 필요했고 후궁들은 간택받기 위해 외모와 성적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비법과 처방의 필요에 의해서였다는 설과 또한 오늘날까지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부다처제의 이슬람의 문화적 배경과도 무관해보이지 않습니다.

WARNING!

여러 종류의 자무를 사용할 때는 해당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무는 반드시 공인된 제조사로부터 구입해야하며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부기관이나 민간의 관련 감시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전통 치료제뿐만 아니라 음식, 화장품, 모든 분야의 자무 제품이 포함됩니다. 유사품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유명한 자무제품의 경우 영세 업체에서 모조품을 만들어 가짜 상품을 파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외관상 디자인이나 이름이 유사해도 내용물은 꼭 일치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야시장이나 유원지에서 볼 수 있는 이동식 자무 판매상의 경우 기존 자무 제품에 스테로이드제나, 항생제, 최음제 등을 불법적으로 섞어 효능을 과장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통 자무의 제조는 대부분 영세한 가내 수공업 수준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조과정 중에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유입이나 유통과정 중에 변질되어 2차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화학 통에 부주의하게 자무를 넣어 유통시키다 소비자들이 음독된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된 자무의 효능에 현혹되지 말고 공신력 있는 제조사의 선별 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무 비즈니스

자무 제조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1980년에서 1990년대입니다. 1998년에는 약 700개의 자무제조사가 인니 보건부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79개의 자무회사가 산업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회사였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 수공업 정도의 영소한 규모였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가정의 자무제조사들은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자무 생산은 내수 및 수출을 포함해서 몇몇의 큰 그룹들이 주도합니다. 이러한 회사들도 처음엔 가내 수공업 정도의 작은 규모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은 Jamu Cap Jago (1918), Jamu Cap Potret Nyonya Meneer(1919), Sido Munchul(1951), Air Mancur(1963), Mustika Ratu(1975), Sari Ayu(1979), Deltomed(1979) 그리고 Borobodur(1979) 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자무회사들은 세일즈맨들이 전국각지의 시장이나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제품을 홍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지역판매상이나 대리점들을 확보하였고 그때부터 각 지역마다 자무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각 회사의 고유 제품들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약국이나 대형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어디서나 쉽게 자무 제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활향상과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라 자무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무의 변신, 새로운 수요

자무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던 다른 원인중의 하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90년대 경제위기와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건강과 스태미나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종류의 건강보조식품, 음료, 처방에 대한 소비 증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무의 사용 증가는 공교롭게도 항우울증제나 항불안증 약물의 사용증가와 알코올과 향정신성 약물의 증가와 함께 늘어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자무 중에는 에너지 증대, 스태미나 향상, 각성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에너지 음료나, 토닉(분말 형태) 형태로 제조되어 판매됩니다. 이러한 품목들이 자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자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요성분이 약용식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많이팔리고있는제품에는 'Kratingdaeng', 'Fit-Up', 'Hemaviton' 이란 것들이 있습니

다. 모두 비타민 B와 카페인 그리고 순간적인 에너지 발생에 관여하는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시중에서 에너지 음료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의 하나가 'Extra-Joss' 입니다. Bintang Toedjoe사에 의해 제조되는 것으로 때론 인삼을 함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화학성분입니다. 파우더의 형태로 작은 포장형태로 팔립니다. 다른 제품은 남성성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이미지의 상품으로 'Irex', 'Extra-Joss Irex' 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TV에서 육체미 선수나, 유명 축구인 등을 등장시켜 다소 과장적인 광고를 통해 힘과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제품으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무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용 및 화장품 영역의 제품 비중이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규모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화장품과 미용시장인데 거대 자무회사들이 중산층이나 상류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

발 쪽으로 이동해온 결과입니다. 천연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 관련제품은 대량의 자무 원료가 필요하고 가공 공정을 위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저가에 서민들에게 팔리는 자무의 약품들에 비해 훨씬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고급 샴푸와 맛사지숍, 스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은 유기농 천연화장품의 수요급증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중산류층 이상의 특정 고객들에게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무의 표준화, 과학화

아무리 훌륭한 고대의 비법이나 전통적인 처방이 있다하더라도 현대의 과학적 방법에 의해 안정성과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008년 이후 자무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 보건부 (Ministry of Health)에서는 ‘자무의 과학화(Jamu Scientification)’ 라는 혁신 프로그램을 실시중입니다. 자무의 과학화란 실험적 증거를 토대로 안전성과, 효율성, 정량성이 검증

된 자무를 생산 및 조직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무의 과학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자무원료와 제품들을 생산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과 법률과 규정, 기반시설, 자무 원료 물질의 안정적 공급 등의 요인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무에 관련된 연구 기술개발과 실험기구 자재, 연구 능력 증진 및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무의 과학화’ 과정은 아직 초기단계로써 많은 부분이 있어 발전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능력 증진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보건부 산하의 약용식물 및 전통의약 연구소(중부 자와 따왕망우 소재)나 보고르농과대학의 생약연구소 등에서 전문 인력 양성과 자무의 표준화 과학화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의 시설이나 연구능력에는 살짝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많은 발전과 성공을 기대해 봅니다.





법인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1. 법인

법인은 자연인(사람)은 아닌데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 즉, 일정한 조직을 가진 사람의 집단(사단) 또는 독립된 목적재산(재단)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를 뜻한다.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등으로 구분된다. 공법인은 특정한 공공목적에 특별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가 공법인에 해당되며, 사법인은 사법상의 법인이란 뜻이며, 주식회사(PT), 재단(Yayasan), 조합(Koperasi), 아파트입주자조합(PPRS) 등이 사법인에 해당된다. 주식회사, 재단 혹은 조합을 설립하면 바로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정 구비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법인자격을 신청하여 법인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설립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설립자, 운영자 및 감독자는 해당 단체가 정부로부터 법인자격을 받기 전까지는 단체의 모든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무한 연대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재단 혹은 조합을 설립 후 법정 구비요건을 갖추어 신속하게 법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이다.

2. 법인의 형사법상 주체 여부

법인은 죄를 지어도 교도소에 보낼 수 없는 무생물인 단체이니 법인이 형법상의 주체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법인도 형사법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법인도 형사법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i). 고의 범죄나 과실 범죄나 고의 혹은 과실이 사람에게 있지 법인에게 있지 않다. ii). 처벌의 대상인 범죄, “예” 를 들어 절도, 폭행은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지만 법인은 저지를 수 없다. iii). 형사처벌이란 범죄자의 자유를 강제로 빼앗는 것인데 무생물인 법인에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는 것을 어떠한 빼앗을 수 있는가?. iv).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은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당할 수 있다. v). 현실적으로 어떠한

규범이나 기준에 의해 법인만 처벌할 것인지, 법인의 대표만 처벌할 것인지, 법인과 법인의 대표 둘 다 처벌할 것인지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 이와 반대로 법인도 형사법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i). 법인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개인만 처벌한 것은 부당하며, 법인의 대표와 법인, 둘 다 형사처벌함이 마땅하다. ii). 국민의 사회 활동 및 경제 활동에 법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인의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ii). 형법의 본질은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국민을 보호하려면 사회 규범과 법규를 보호해야 한다. 사회규범이나 법령을 범하는 자연인만 형사 처벌하고, 사회규범이나 법령을 범하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사회 규범이나 법령을 범하면 자연인이던 법인이던 모두 형사 처벌해야 한다. iv).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법인에 소속된 자연인들에게 범법을 예방하는 효과를 준다. 대법원의 판례는 법인을 형사법상의 주체로 보고 있다.

3. 법인이 범죄 시 형사처벌의 대상은 누구인가?

3.1. 대표적인 법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권은 이사회에 있고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법인이 범죄시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환경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는 화공업 제조 회사, 광산 회사, 플랜테이션 회사, 산림 회사 등이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에 범죄에 해당되며, 회사의 대표이사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3.2. Yayasan이 범죄시에는 Yayasan의 회장(Ketua Pengurus)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종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의 Yayasan의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Top Leader(*담임목사, 선교사, 단체의 대표)가 Ketua Pengurus(회장)로 등재되어 있는데, 재고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 어떠한 이유로든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현지 제도상 회장은 형사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위치이다. 따라서 Top Leader는 정관상에는 회장보다는 의장

(Ketua Pembina)로 등재하고 실무자를 회장으로 등재하는 것이 현지 실정으로 봐서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종교 Yayasan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4. 범죄를 구성하는 5대 요소

사람 혹은 법인의 행위가 범죄이냐 아니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된다.

4.1. 범행 주체가 있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주체는 사람 혹은 법인이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생명을 잃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던 경우에는 사람을 문 것은 개이지만 개는 범행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개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의 과실이 범죄이며, 개 주인이 범행의 주체가 되며, 주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4.2. 행위에 잘못이 있어야 한다. 법에서는 고의와 고의가 없는 과실 둘 다 잘못으로 봐서 처벌 대상이며 고의나 과실이냐에 따라 형량을 달리할 뿐이다.

4.3. 행위가 실정법에 위배되어야 한다. 윤리 혹은 도덕에 위배되는 행위일지라도 국가에서 제정한 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4. 법규에 금지 혹은 실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위반 시 금하는 사항을 범 했거나 실행을 요하는 사항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도록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4.5. 범행이 발생한 때와 장소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 꿈속에서 저지른 범죄 혹은 생각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은 나쁜 생각은 법적으로는 범죄에 형벌상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상술한 범죄를 구성하는 5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형법상의 범죄로 보지 못한다.

5. 자연인에게 내리는 형벌

5.1. 기본 형벌

- 5.1.1. 사형
- 5.1.2. 징역형
- 5.1.3. 금고형
- 5.1.4. 벌금

5.2. 추가 형벌

- 5.2.1. 특정 권리 박탈
- 5.2.2. 특정 재산 몰수
- 5.2.3. 형사 판결문 공시

6. 법인에게 내리는 형벌

- 6.1. 벌금
- 6.2. 판결문 공고
- 6.3. 인허가 취소
- 6.4. 잠정 조업 중지
- 6.5. 영구 조업 중지
- 6.6. 정부 관재
- 6.7. 폐업

7. 법인이 범하기 쉬운 범죄들

7.1.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죄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물건



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은 부정부패척결법 제5조 위반으로 징역 최단 1년 최장 5년에 벌금 최소 Rp.5천만 최고 Rp.2억 5천만에 해당된다.

7.2. 복수 재무제표 작성죄

한 회사에 한 재무제표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회사 자체용, 주총에 상장용, 은행용, 세무신고용 등 내용이 상이한 복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에 규정한 허위문서 작성 범죄에 해당되며, 징역 최장 6년에 해당된다. 허위 재무제표를 주총에 상정하면 형법 제392조 위반으로 징역 최장 1년 4개월에 해당된다.

7.3. 허위 주주총회 회의록 작성죄

주식회사법은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 개선, 증자, 업종 추가, 결산보고 승인, 사업계획 승인 등 회사의 주요 사항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식매매도 법무부의 절차 상 주총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인 바, 많은 회사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주총을 개최하지 않고 주총을 개최해서 결의한 것처럼 주총회의록을 작성하고, 주총회의록을 공정증서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처리 방법이 이해관계 당사자 간에 분쟁이 없을 때는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분쟁이 발생 시에는, 상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총회의록과 공정증서를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허위 주주총회 회의록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처럼 형법 제263조에 위배되어 징역 최장 6년에 해당되며, 이 허위 주주총회 회의록을 공증인에게 넘겨 공정증서로 만들면 공정증서에 허위 사실 제공되는 형법 제266조 위반으로 징역 최장 7년에 해당된다.

7.4. 외국인 불법 고용죄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동법 제185조에 따라 징역 최단 1년 최장 4년에 (and or) 벌금 최소 Rp.1억 최고 Rp.4억에 해당된다.

몸 깊숙이 남겨놓은 자리가 있어
후드득 지나가는 빗방울 몇 개만 있어도
순식간에 그대 곁으로 달려간다, 달려간다

아주 짧은,
단 한 번의 부딪힘만으로도 너른 바위를 덮고
계곡을 덮고
고인돌까지 덮을 만큼

지독하게 간절한
무엇이 있어

이끼 - 김경성



Ubud, Bali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가족은 치유다.
가족은 웃음이고 눈물이다.
그래서 가족은 감동이다.**

“나를 제대로 살게 하는 것도 가족이고,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도 가족이다.
나를 누구보다 힘들게 하는 것도 가족이고,
나한테 누구보다 상처가 되는 존재 역시 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쁜 순간, 가장 슬픈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또한 가족이다.
세상에서 가장 징하고도 질긴 나의 운명, 바로 나의 가족들!
그렇게 늘 습관처럼 내 옆에 있는 존재들이기에
고마움도 당연하게 넘겨버리고, 미안함도 대충 지나가버린다.
가족이라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희생과 배려들,
가족이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 받았던 상처들,
그걸 알면서도 차마 전하지 못했던 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가족끼리라, 가족이라서,
더더욱 서로에게 인색했던 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새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이래”
제목만 보면 무슨 드라마 일까...제목은 또 왜 이럴까? 라고 물음표를 찍어본다.
드라마 메인 페이지 기획의도에 나온 글을 읽자니 가슴에 물경한 것이 느껴지며
아 이게 가족이구나... 제대로 살구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는 고백 아끼지 말고 하세요.

똑부러지는 배테랑 여비서 차장심. 오늘도 맞은 업무 수행하고 불은 라면을 먹습니다.

- Mienya sudah **mekar**.

면이 다 불었네

몸이 붓는 것 말고 몸이 불다... 불어서 커지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불다 관용적 표현은 불다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거나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짐 이며

Mekar/ Bengkak/ Kembang/Muai

문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1. **Mekar**

Me.kar = 꽃이 개화하다 또는 어떠한 형태의 물건이 많아지거나 부피가 불어남이나 (밀가루) 반죽등이 불어남을 표현합니다.

- ♦ (mulai) berkembang,
- ♦ Menjadi besar dan gembung; menjadi banyak,
- ♦ Menjadi bertambah luas (besar, ramai, bagus, dsb)

- Bunga tulip mulai bermekaran pada bulan Maret.

튤립은 3월에 개화 하기 시작한다.

- Badannya **mekar** karena dia jarang berolahraga.

운동을 하지 않아 몸이 불었다.

- Diamkan adonannya selama 30 menit hingga **mekar**.

반죽이 불도록 30분간 놔둡니다.

2. **Bengkak** (kata sifat (a))

Beng. kak = 어떠한 영향을 받아 (몸이나 특정 부위가) 붓거나 불어남을 표현합니다. menjadi besar krn pengaruh sesuatu (tt bagian tubuh)

- Pipinya **bengkak** karena sakit gigi.

이가 아파서 불이 부었다.

- Wajahnya **bengkak** setelah disengat tawon.

말벌에 쏘여 얼굴이 부었다.

3. **Berkembang** (어근 Kembang)

Ber. kem. bang = 개화하다 불다 또는 붓다 (범위가 나 확식, 역량) 넓어지거나 많아져 발전하는 것, 수량이 많아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 ♦ mekar terbuka
- ♦ menjadi besar (luas, banyak, dsb); memuai;
- ♦ menjadi bertambah sempurna (tt pribadi, pikiran, pengetahuan, dsb);
- ♦ menjadi banyak (merata, meluas, dsb);

- Tanpa berlatih, keahliannya tidak akan **berkembang**.

훈련 없이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다

- Usaha ayahku mulai **berkembang** setelah mendapatkan dana bantuan dari pemerintah. 정부 보조금을 받아 아버지의 사업이 번창 (발전)하기 시작했다

4. **Memuai** (kata kerja aktif (V) dengan awalan me-, kata dasar : muai)

Me.mu.ai = 커지다 (고열 따위에 의해) 팽창하다. 부풀다를 표현합니다. menjadi besar (tt benda yg dipanaskan, direbus, digoreng, direndam, dsb); mengembang;

- Kaca akan **memuai** bila dipanaskan.

유리가 열받으면 팽창한다.

- Karet akan **memuai**, jika lama direndam di minyak tanah.

고무를 원유에 담그면 팽창한다. (부풀다)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이미지 인문학 2

진중권 저 | 천년의상상

섬뜩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언캐니의 세계

주위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한 오늘날, ‘디지털’은 딱히 새로울 것이 없는 일상이 되었다. 이미지를 텍스트로, 텍스트를 다시 이미지로 변환하는 디지털 기술은 일상으로 체험된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이 이미지의 원리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문자로 그린 그림’이다. 이러한 기술적 형상은 그 아래에 복잡한 텍스트를 깔고 있는 일종의 아이콘이다. ‘이미지’는 눈에 보이나, 그 바탕의 텍스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글자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이미지를 못 읽는 자가 미래의 문맹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미지 인문학 1》의 화두를 상기시킨다.



마흔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한다

오한진 저 | 중앙북스(books)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사는 법

교양과 예능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대중에게 건강한 삶에 대한 조언을 하는 스타 의사이자 국민주치의라는 별칭으로 익숙한 오한진 박사가 중년들을 위한 다이어트 처방전을 냈다. 2, 4주면 완성된다는 다이어트법의 허실을 꼬집고, 나이 들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랫동안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풀어냈다.



내릴 수 없는 배

우석훈 저 | 웅진지식하우스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경제학자 우석훈이 쓴 『내릴 수 없는 배』는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국 사회를 깊숙이 관통하는 시점으로 그 배경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왜 생명의 문제가 경제적 차별에 좌우되는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공공 시스템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이 크나큰 비극 뒤에서 재난 자본주의는 어떻게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희망을 가져다줄 미래의 주체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각계 전문가들의 숨은 지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가치들을 일깨운다.

저는 심리학이 처음인데요

강현식 저 | 한빛비즈

행복한 삶을 위한 심리학의 모든 것

이 책은 심리학 대중서이면서도 심리학 지식까지 온전히 해결해주는 입문서를 표방한다. 저자는 그간 심리학에 대한 대중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면서도 가능한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의 입장을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심리학 핵심개념들을 간결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풀어주고, 독자의 쉬운 이해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예시를 들었다.



낀 세대 리더의 반란

조미진 저 | 알에이치코리아(RHK)

중간에 낀 세대가 현명하게 일하는 법

이 책이 정의하는 ‘낀 세대 리더’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으로 12년에서 18년, 길게는 20년 정도 일한 사람들이다. 조직에 따라 과장부터 차장, 부장까지 포함된다. 삶의 단계에서 보면 새로운 도전과 변화보다는 안정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그룹으로 보인다. 위로는 기성세대 상사의 기대를 끊임 없이 살피고 맞춰가야 하는 동시에 아래로는 성장 토양도, 관점과 생각도 전혀 다른 M세대 팔로워를 상대하며 마음의 문을 열 방법을 고민한다. 낀 세대 리더가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



전쟁의 신 이순신

설민석 저 | 휴먼큐브

기적의 승리, 명량

『전쟁의 신, 이순신』은 ‘인간 이순신’을 말하기 위해 이순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열 명의 주변인물을 소개한다. 이순신의 어머니 초계 변씨가 바라본 ‘내 아들, 순신이’ / 류성룡이 바라본 ‘전쟁의 신’ / 적장 구루시마가 바라본 ‘사이코(最高, さいこう) 이순신’ / 정조가 바라본 ‘조선의 충신’ 등 책 속에서 가족, 지인, 적장 등 이순신 삶의 다양한 주변인물이 바라본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이순신 인물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놓쳤던 혹은 몰랐던 이순신의 새로운 모습을 알 수 있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2014년 한인회 임원산조금 명단

9월1현재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 명예회장	승 은 호	PT. KORINDO GROUP	2014	19,973	
2	한인회 명예고문	김 재 유	PT. DONG SUNG	2014	5,000	
3	한인회 회장	신 기 업	PT. HANINDO EXPRESS	2014	20,000	
4	한인회 수석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	2014	10,000	
5	한인회 수석부회장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2014	10,000	
6	한인회 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4	5,000	
7	한인회 부회장	김 희 년	PT. E-TRADING	2014	5,000	
8	한인회 부회장	김 영 옥	PT. GAYA INDAH KHARISMA	2014	5,000	
9	한인회 부회장	김 주 철	PT. STAR CAMTEX	2014	5,000	
10	한인회 부회장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4	5,000	
11	한인회 부회장	박 재 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4	5,000	
12	한인회 부회장	엄 정 호	PT. ING INTERNATIONAL	2014	5,000	
13	한인회 부회장	이 지 현	PT. ZIMMOAH MARINE	2014	5,000	
14	한인회 부회장	이 진 수	PT. SUNGBO JAYA	2014	5,000	
15	한인회 부회장	이 호 덕	PT. VICTOR JAYA RAYA	2014	5,000	
16	한인회 부회장	최 상 학	BANK WOORI	2014	5,000	
17	한인회 부회장	황 의 상	PT. INHWA INDONESIA	2014	5,000	
18	한인회 자문위원단 의장	배 상 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2014	2,000	
19	한인회 자문위원	강 덕 재	PT. LEMBU SWANA PERKASA	2014	1,000	
20	한인회 자문위원	김 문 환	PT. KASINDO GLOBAL UTAMA	2014	1,000	
21	한인회 자문위원	김 병 철	PT. MISUNG INDONESIA	2014	1,000	
22	한인회 자문위원	김 석 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4	1,000	
23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만	PT. KIPCO UTAMA ENERGY	2014	1,000	
24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주	PT. DEWA CITRA SEJATI	2014	1,000	
25	한인회 자문위원	김 우 재	PT. KOIN BUMI	2014	1,000	
26	한인회 자문위원	박 동 희	PT. TRIKARYA ALAM	2014	1,000	
27	한인회 자문위원	박 헌 식	PT. DONGAN KREASI	2014	1,000	
28	한인회 자문위원	석 웅 치	PT. DAYUP INDONESIA	2014	1,000	
29	한인회 자문위원	송 재 선	PT. PUTRA HANKUK	2014	1,000	
30	한인회 자문위원	양 영 연	PT. BOSUNG INDONESIA	2014	1,000	
31	한인회 자문위원	이 승 민	YSM & PARTNERS	2014	1,000	
32	한인회 자문위원	이 진 호	PT. JIN YOUNG	2014	1,000	
33	한인회 자문위원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4	1,000	
34	한인회 자문위원	정 무 웅	코린도 장학재단	2014	1,000	
35	한인회 자문위원	최 정 남	PT. GLOBAL FIBERINDO	2014	1,000	
36	한인회 자문위원	하 연 수	PT. SEOLIN	2014	1,000	
37	한인회 자문위원	현 상 범	PT. INAMEN JAYA	2014	1,000	
38	한인회 이사	강 주 석	PT. SERIM INDONESIA	2014	1,000	
39	한인회 이사	강 호 성	PT. ANUGRAH CIPTA MOULD SHOP	2014	1,000	
40	한인회 이사	구 자 성	일요신문	2014	1,000	
41	한인회 이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4	1,000	
42	한인회 이사	김 경 국	PT. NES	2014	1,000	
43	한인회 이사	김 도 상	PT. HONGIK INDONESIA	2014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44	한인회 이사	김 문 호	PT. DADA INDONESIA	2014	1,000	
45	한인회 이사	김 상 태	PT. SMS GROUP	2014	1,000	
46	한인회 이사	김 성 국	PT. TRISTAN RESOURCES	2014	1,000	
47	한인회 이사	김 세 형	PT. BTEXB INDONESIA	2014	1,000	
48	한인회 이사	김 종 헌	PT. KOIN BUMI	2014	1,000	
49	한인회 이사	김 희 익	PT. EPS INDONESIA	2014	1,000	
50	한인회 이사	노 승 원	PT. SGWICUS INDONESIA	2014	1,000	
51	한인회 이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4	1,000	
52	한인회 이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2014	1,000	
53	한인회 이사	배 정 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2014	1,000	
54	한인회 이사	서 영 름	PT. PRATAMA ABADI	2014	1,000	
55	한인회 이사	송 판 원	PT. KORYE POLIMER	2014	1,000	
56	한인회 이사	신 규 태	PT. INDO SUNGIL JAYA	2014	1,000	
57	한인회 이사	신 만 기	PT. PARKLAND WORLD	2013	1,000	
58	한인회 이사	안 상 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4	1,000	
59	한인회 이사	안 선 근	U.I.N UNIVERSITY	2014	1,000	
60	한인회 이사	안 흥 제	PT. KOLON INA	2014	1,000	
61	한인회 이사	양 시 완	PT. KISWIRE BALARAJA	2014	1,000	
62	한인회 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4	1,000	
63	한인회 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4	1,000	
64	한인회 이사	유 주 완	PT. FEEL BUY	2014	1,000	
65	한인회 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4	1,000	
66	한인회 이사	이 상 일	PT. U I B	2014	1,000	
67	한인회 이사	이 소 왕	L S W	2013	1,000	
68	한인회 이사	이 지 완	PT. JIN YOUNG	2014	1,000	
69	한인회 이사	이 창 훈	PT. KIDECO JAYA AGUNG	2014	1,000	
70	한인회 이사	이 철 훈	PT. INDO BOX UTAMA JAYA	2014	1,000	
71	한인회 이사	임 성 용	PT. MIRINA NUSANTARA	2014	1,000	
72	한인회 이사	정 철 주	PT. DONG IL	2014	1,000	
73	한인회 이사	차 상 만	PT. HANKOOK CERAMIC	2014	1,000	
74	한인회 이사	홍 기 호	PT. AURORA WORLD	2014	1,000	
75	한인회 이사	황 윤 흥	자카르타경제일보사	2014		11,675,000
총 금액					\$182,973	Rp11,675,000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KEBI HANA BANK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2014년 한인회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접수순)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 액	
			IDR	USD
1	이 지 현	2014	6,000,000	
2	김 주 철	2014	3,000,000	
3	이 종 후	2014	1,000,000	
4	백 승 래	2014		200
5	손 용	2014	300,000	
6	임 성 용	2014	300,000	
7	이 승 민	2014	300,000	
8	김 재 민	2014	300,000	
9	신 기 업	2014	300,000	
10	강 희 중	2014	300,000	
11	강 덕 재	2014	3,300,000	
12	김 원 모	2014	300,000	
13	권 영 동	2014	300,000	
14	김 일 태	2014	300,000	
15	이 소 왕	2014	300,000	
16	이 완 주	2014	300,000	
17	이 효 욱	2014	300,000	
18	정 재 호	2014	300,000	
19	최 건 호	2014	300,000	
20	최 문 중	2014	300,000	
21	홍 석 진	2014	300,000	
22	홍 훈 섭	2014	300,000	
23	김 섭	2014	300,000	
24	김 종 주	2014	300,000	
25	오 세 윤	2014	300,000	
26	김 현 동	2014	300,000	
27	백 승 명	2014	300,000	
28	윤 석 환	2014	300,000	
29	이 기 열	2014	300,000	
30	이 정 호	2014	300,000	
31	최 호 영	2014	300,000	
32	황 재 규	2014	300,000	
33	한 기 환	2014	300,000	
34	배 희 윤	2014	300,000	
35	이 봉 규	2014	300,000	
36	이 원 만	2014	300,000	
37	박 정 호	2014	300,000	
38	양 영 연	2014	300,000	
39	배 영 태	2014	300,000	
40	최 철 우	2014	300,000	
41	김 영 수	2014	300,000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42	이 일 하	2014	300,000	
43	이 수 진	2014	300,000	
44	장 방 식	2014	300,000	
45	조 규 철	2014	300,000	
46	최 양 기	2014	300,000	
47	엄 종 한	2014	300,000	
48	no name	2014	300,000	
49	오 세 명	2014	300,000	
50	김 세 형	2014	300,000	
51	서울메디칼	2014	300,000	
52	김 도 상	2014	300,000	
5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500,000	
54	김 영 울	2014	300,000	
55	김 창 근	2014	300,000	
56	김 대 근	2014	300,000	
57	조 용 재	2014	300,000	
58	이 재 원	2014	300,000	
59	ROTC 김 수 용	2014	300,000	
60	ROTC 김 흥 규	2014	300,000	
61	ROTC 최 형 욱	2014	300,000	
62	ROTC 김 광 석	2014	300,000	
63	ROTC 김 기 주	2014	300,000	
64	ROTC 목 의 수	2014	300,000	
65	ROTC 김 성 주	2014	300,000	
66	ROTC 이 시 현	2014	300,000	
67	최 우 범	2014~2018	1,500,000	
68	신 규 태	2014~2015	600,000	
69	김 영 필	2014	300,000	
70	엄 정 호	2014		300
71	김 종 현	2014	300,000	
72	임 성 필	2014	300,000	
73	이 지 완	2014	300,000	
74	강 영 균	2014	300,000	
75	이 현 식	2014	300,000	
76	서 준 형	2014	300,000	
77	김 경 국	2014	300,000	
78	김 우 재	2014	300,000	
79	강 희 중	2014	300,000	
80	박 헌 식	2014	300,000	
81	현 상 범	2014	300,000	
총 금액			Rp38,500,000	\$5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 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Creative Director
President Director
Tae-Joong. Rhee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 +62. 21. 7919. 2006(Rep.) **F**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M 0812. 1011. 1000 / 0822. 2110. 2922 **E** jasoncpu@gmail.com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	780	7313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데مْ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참피온



환전
송금업무
높은환율

Tel: (021) 4585 1158
HP: 0815 114 14 119
주소: Ruko Inkopal Block C No.75
Kelapa Gading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웅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옥)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옥)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옥)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연)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종)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김인환)	0813 1572 188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4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Jl. Jend. Gatot Subroto Kav.56, Jakarta 12950
15th Floor Suite 1503
Tel. 62-21-2941-0780 (hunting) Fax. 62-21-2941-0775
E-mail: doowang@cbn.net.id, doowangjkt@gmail.com





연합교회	2729 5625
에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람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당)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샤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카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짜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카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짜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짜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짜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짜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짜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카시서울(버카시)	8895	7604
부산횃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카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짜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짜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짜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140	1245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짜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짜까랑)	8983	6047
아리랑(짜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짜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짜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짜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짜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끌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BBQ(끌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하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뎀)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163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등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1066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143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8515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80591625
세명 하숙	085217575525
세노파티코리아안 하우스	082113361111
소망 하숙	0813172499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964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6074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1024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쎬드라아트스쿨(리포카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 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 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 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 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 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갈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세계 패션 의류 생산의 중심, 두산

선진 섬유 기술의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서 온
PT. DOOSAN CIPTA BUSANA JAYA 는 글로벌 의류 시장의
우뚝 선 기업으로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 입니다.

PT. DOOSAN CIPTA BUSANA JAYA 



Haesley Nine Bridge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 다른 행동 ; 다른 결과 ; 앞서서 남다름!!

TtU는 마인드 행동양식, 표현방식 등 기존의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이노메이트의 핵심입니다.!



The reception area:the sailing-boat-like reception desk visualises the value-thinking IBM lives by.



KBS Media Center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Creative human space design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 Rep. 021. 7919. 2006 / IP. 070. 4644. 2280 / M 0812. 1011. 1000
 이노메이트의 수익금의 일부는 J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고객의 명의로 장학금으로 기부 예정입니다.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독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깔리만탄 Paser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르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